외대학보

진리 평화창조

1998년 9월 7일 (월) 제719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고영훈 편집장 박윤정 인쇄인 홍운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0(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5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98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개막

'세계풍물음식전' '세계민속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도전과 화해의 청년마당' 98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의 막이 올랐다.

지난 5일(토)6일(일) 이틀간 방송통신대학교 진입로부터 마로니에 공원까지 이어진 대학로에서 열린 '세계풍물음식전'을 신호탄으로 16일간의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일(토)에는 우천으로 인해 행사가 연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여 세민전을 준비한 학생들과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세민전 첫째 주 행사인 '세계풍물음식전'은 아프리카, 프랑스, 중국, 인도를 비롯한 총 18개 나라의 풍물·음식이 선보여 휴일을 맞아 대학로에 나온 시민, 학생, 주한외국인 등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아랍의 '코푸타', 아프리카 '쌈부사' 등 동·서양의 전통음식이 선보인 음식점은 싼 값에 여러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비롯한 사회각계의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세계풍물음식전과 함께 진행된 이탈리어과·불어과·아프리카어과·러시아어과 학생들의 원어노래공연과 태국어과 학생들의 민속춤 감습, 민속의상을 입혀주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는 행사는 이후 진행될 세계민속공연과 세계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예상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 사람의 청년시절'을 다룬 세계인물전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폴란드 전대통령 바웬사, 교황 요한바오로 2세 등이 등장한 이번 행사에서 특히 월북 작가인 벽초 홍명희등 북한 인물도 선보였다.

한편 세민전 두번째 주인 이번 주에는 오는 12일(토) KBS홀에서 중심행사인 '세계민속공연'이 마련된다. 우리학교 학생은 학생증 지참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한다.

김민석기자

92년부터 2년마다 용인배움터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이 '도전과 화해의 청년마당'이라는 기치로 지난 5일(토) 한국방송대학교와 대학로 일대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세민전에서는 △종물전 △음식전 △세계인물전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지만, 갑자기 내린 비로인해 행사진행이 어려워지자 방학기간내내 행사준비에 전념한 준비위원들을 안타깝게 했다.

임승희 기자

사설 사오정의 교훈

▲정부수립 50돌을 맞아 '제2 건국 선언'을 하고 총체적인 개혁을 이루겠다는 김대통령의 다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요즘 신문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원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권 초기에 힘은 못 실어줄 망정 원성만 한다고 국민들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열치 불구하고 몇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양심수 문제 아시죠. 당신도 한때 양심수였고, 국가보안법 때문에 사형선고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는 하지만 어찌 수많은 양심수를 외면하십니까.

없애려면 깨끗이 없앨 것이지 준법서약서는 왜 만들어서 양심수를 계속 가둬두고 그러십니까. 간첩단사건과 조직사건은 왜 그리도 자주 일어납니까. 게다가 이북 동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고치지는 못할망정 한총련에다 그 울가미를 씌워 학생들을 법법자로 만드십니까. 통일대통령으로 불리기도 바라신다면서요. 그래서 '햇볕론'도 창시하셨구요. 적과의 동침은 어떻게 하실런지요.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신노사관계 수립도 하겠다면서요. 왜 만도기계에 전투경찰을 투입해 쑥대밭을 만드셨나요. 일자리를 잃은 거리의 아버지 얘기, 꿈을 잃어버린 가족들, 점심을 굶는 아이들… 이런 얘기 들고는 계시나요.

▲'제2 건국.' '선언'보다 선언의 '내용'이 중요하고, 이 눈치 저 눈치보며 재는 것 보다 '집행'이 필요합니다. 먼저 과거청산부터 하십시오. 그 첫걸음은 과거 부정한 정권으로부터 부당하게 구속됐던 양심수를 아무 조건없이 석방하는 것입니다. 경제정문화를 개최, 경제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물으십시오. 그것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대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정부수립과 동시에 제정됐던 국가보안법도 과감히 폐지하십시오. 50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취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경제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전에 직접 말했던 IMF와의 재협상도 실시하고, 재벌도 똑 부러지게 개혁하십시오. 돈도 없는 나라에 무기 좀 그만 구입하시고 군사훈련도 중단해 국방비도 줄이십시오. 주한미군 먹고 입힐 돈으로 실업자분들 도와주시고 교육재정도 좀 넉넉히 꾸리십시오.

▲사오정 얘기 아시죠. 질문이나 화제에 동떨어진 대답과 행동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얘기 말입니다. 제발 당신은 사오정이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사오정같은 행동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시잖습니까. 민중의 '원성'을 정확히 듣고 과감히 행동하십시오. 사오정 얘기야 웃어 넘기는 되지만, 당신이 그러시면 그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김영준

정치수배해제 2만3천여명 지지서명

국민회의·법무부에 탄원서 제출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된 학생운동 관련자 8명은 지난 8월 9일부터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늘(7일)로 농성 30일째를 맞고 있는 오창규(전남대 86, 93년 남총련 의장)씨 등 농성단 8명은 정치수배자 65명 전원의 수배해제와 양심수 전원석방, 양심수 군대문제 해결,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성단 단장 오창규씨는 "전두환, 노태우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면·복권시켜준 마당에 부정한 정권에 대항해 싸웠던 학생들의 수배해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학생들은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억울하게 수배자가 된 시대의 희생양이므로, 김대정 정부는 과거청산과 정권교체의 의미를 살려 조건없이 수배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성단은 서명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후원회 결성 등의 활동을 통해 2만3천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두번에 걸쳐 국민회의와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한기도 했다.

한편 동국대 양심수·수배자 대책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토)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하루 주막'을 열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한 농성단은 13일(일)에는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 주최로 '정치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도 조계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준 기자

교직원 인사발령 단행

재단비리관련자 미온적 조치에 그쳐

대학당국은 지난달 27일(목)과 이번달 1일(화)자로 각각 직원과 교원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사상최대규모의 이번 인사이동은 총장선임이 늦어짐에 따라 통상 방중에 실시되던 것이 다소 늦춰져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행정업무 인수인계와 학사행정에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인사발령의 경우 지난 3월에 조규철 총장(당시 직무대행)에 의해 입명된 각 부처 처장급인사는 거의 없었으며 서울배움터 부총장에 김정기(신방과)교수를 학교법인 사무처장에 조종혁(신방과)교수를 임명했다. 그 외에도 일부 단과대 학장급이나 대학원장 보직이동사항이 있었으며 다수 학과의 학과장이 교체되고 16명의 교원이 신규임용됐다.

총 350여명(용원직 포함)의 직원 중 130여명이나 이동발령 조치된 직원인사에서는 지난 학기 재단사태와 관련 근무지이탈, 비리혐의 포착 등으로 징계에 회부된 바 있는 직원 12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기발령을 받은 뒤 두달동안 재발령을 받지 않으면 자연 해고된다. 그리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98 총학생회답게' 유인물을 통해 "교육부 감사결과 경고조치를 받은 교지원, 외대정상화협의회 등 구재단세력측의 교직원, 베트남여행 등 구재단비리 관련 인사 등 '구악'을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하는 미온적인 조치"라고 비판하고 근무처이동조치보다 더욱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총무처 관계자는 "총장선임이 늦어지는 바람에 업무마비를 우려해 우선 근무부서 이동만 단행했고 현재 징계를 위한 입증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교원보임 : 대학원장(김광요 독일어과 교수), 통역번역대학원장(최관장 중국어과 교수), 교육대학원장(예참해 한교과 교수), 사회과학대학장(김명수 행정학과 교수), 사범대학장(윤종건 교육학 담당 교수).

▶ 인사이동 11면에 계속

우혜나 기자

사령

임

편집장

박윤정(사회·행정 3)

외대학보

알림

본보수습기자모집

대상 : 98학번 새내기

모집부분 : 대학·사회·사진·문화·학술

기간 : 9월 23일(수)까지

문의 : (02)961-4152, (0335)30-4112

외대학보

결산 및 예산 공고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및 예산서

(교비회계 및 기성회회계 합산)

(97결산 : 1997. 3. 1 ~ 1998. 2. 28 /98예산 : 1998. 3. 1 ~ 1999. 2. 28) (단위 : 백만원)

자금수입 과목	'97 결산	'98 예산	자금지출 과목	'97 결산	'98 예산
I. 당기자금수입	91,078	75,314	I. 당기자금지출	91,073	75,314
1. 등록금수입	60,338	61,308	1. 보수	36,822	38,181
(1) 등록금수입	60,150	61,258	(1) 교원보수	24,146	25,099
① 입학금	2,455	2,554	(2) 직원보수	12,676	13,082
② 수업료	36,912	37,373	2. 관리운영비	7,527	6,175
③ 기성회비	20,783	21,331	(1) 시설관리비	3,084	3,460
(2) 수업료수입	188	50	(2) 일반운영비	2,039	1,765
① 단기수강료	188	50	(3) 운영비	1,804	930
2. 잡입 및 기부수입	12,181	6,600	3. 연구학생경비	14,673	13,011
(1) 잡입금수입	3,336	0	(1) 연구비	3,026	2,500
(2) 기부금수입	6,953	5,000	(2) 학생경비	9,775	9,120
(3) 국고보조금수입	1,892	1,600	① 장학금·학비감면	7,238	6,712
① 시설·설비보조	511	430	② 실험실습비	551	540
② 도서은보조	532	460	③ 학생지원비	1,585	1,473
③ 자구노력지원	265	225	④ 기타학생경비	401	395
④ 기타보조금	584	485	(3) 입시관리비	1,272	1,291
3. 교육부대수입	2,069	1,786	4. 교육외비용	309	635
(1) 입시수공수입	1,467	1,391	5.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1,456	2,640
(2) 증명·사용료수입	220	145	(1) 특정기금적립	11,439	2,640
(3) 기타교육부대수입	382	250	① 건축기금적립	352	0
4. 교육외 수입	2,784	2,080	② 장학기금적립	27	40
(1) 예금이자수입	2,208	2,000	③ 퇴직기금적립	536	100
(2) 기타교육외수입	76	80	④ 기타기금적립	10,482	2,500
5. 투자외기타자산수입	12,003	3,540	(2) 기타자산지출	17	0
(1) 특정기금인출수입	11,759	3,540	6. 고정자산매입지출	19,703	14,109
① 연구기금인출	360	0	(1)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19,703	14,109
② 건축기금인출	5,610	0	① 토지매입비	387	0
③ 장학기금인출	46	40	② 기계·기구매입비	3,388	2,500
④ 기타기금인출	5,743	3,500	③ 집기비품매입비	1,007	300
(2) 기타자산수입	244	0	④ 차량운반구매입비	45	35
6. 고정부채입금	1,703	0	⑤ 도서구입비	1,613	1,000
(1) 장기차입금	1,700	0	⑥ 건설가계정	13,263	10,274
(2) 기타고정부채	3	0	7. 고정부채상환	583	563
II. 미사용전기이월자금	-98	-98	II.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93	-98
1. 기초유동자산	26,172	26,172	1. 기말유동자산	25,295	26,172
2. 기초유동부채	26,270	26,270	2. 기말유동부채	25,388	26,270
자금수입총계	90,980	75,216	자금지출총계	90,980	75,216

1997회계년도 결산 및 1998년도 예산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998. 9.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변 형 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조 규 철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및 예산서

(법인일반업무회계)

(97결산 : 1997. 3. 1 ~ 1998. 2. 28 /98예산 : 1998. 3. 1 ~ 1999. 2. 28) (단위 : 백만원)

자금수입 과목	'97 결산	'98 예산	자금지출 과목	'97 결산	'98 예산
I. 당기자금수입	8,595	2,636	I. 당기자금지출	9,117	1,373
1. 잡입 및 기부수입	2,529	800	1. 보수	282	381
(1) 잡입금수입	700	550	(1) 직원보수	282	381
(2) 특별회계전입금	700	550	2. 관리운영비	958	786
(3) 기부금수입	1,829	250	(1) 시설관리비	374	381
(1) 일반기부금	513	250	(2) 일반운영비	461	327
(2) 지정기부금	1,316	0	(3) 운영비	133	78
2. 교육외 수입	2,045	1,425	3. 연구학생경비	4	4
(1) 예금이자수입	391	200	(1) 학생경비	4	4
(2) 기타교육외수입	8	5	① 강학금	4	4
(3) 수익재산수입	1,646	1,220	4. 교육외비용	305	1
① 임대료수입	1,005	700	5. 전출금	3,336	0
② 기타수익재산수입	641	520	6. 투자외기타자산지출	1,497	0
3. 투자외기타자산수입	1,747	350	(1) 투자자산지출	2	0
(1) 특정기금인출수입	1,747	350	(2) 특정기금적립	1,495	0
4. 고정부채입금	3,274	61	7. 고정자산매입지출	2	1
(1) 기타고정부채	3,274	61	(1)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2	1
① 임대보증수입	2,559	61	① 집기비품매입비	2	1
② 기타고정부채수입	715	0	8. 고정부채상환	2,733	200
			(1) 기타고정부채상환	2,733	200
			① 임대보증금환급	533	200
			② 기타고정부채상환	2,200	0
II. 미사용전기이월자금	217	627	II.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695	1,890
1. 기초유동자산	739	1,250	1. 기말유동자산	1,250	2,513
2. 기초유동부채	522	623	2. 기말유동부채	555	623
자금수입총계	9,812	3,263	자금지출총계	9,812	3,263

■ 내부감사의견 : 우리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국어대학교)의 1997회계년도 결산을 감사한 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1997회계년도의 회계처리는 적정하였다.

1998. 8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감 사 이 훈
감 사 박 원 순

합산대차대조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합산)

1998.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자산 과목	금액	부채 및 기본금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26,073	I. 유동부채	25,472
1. 유동자금	23,117	1. 예수금	206
(1) 현금	1	(1) 일반예수금	35
(2) 예금	23,116	(2) 제세예수금	25
2. 기타유동자산	2,956	2. 선수금	25,153
(1) 선급금	676	(1) 등록금선수금	24,067
(2) 미수금	665	(2) 기타선수금	166
(3) 선급법인세	595	3. 기타유동부채	53
(4) 기타유동자산	1,000	(1) 미지급금	53
II. 투자및기타자산	14,941	II. 고정부채	10,411
1. 투자자산	2,818	1. 장기차입금	5,538
(1) 투자유가증권	167	(2) 장기차입금	5,341
평가충당금	-9	(3) 차손	127
(2) 출자금	2,660	2. 기타고정부채	4,873
2. 특정기금	12,005	(1) 임대보증금	3,669
(1) 장학기금	365	(2) 퇴직급여충당금	1,204
(2) 퇴직기금	3,028	부채총계	35,883
(3) 기타기금	8,613		
3. 기타자산	117	I. 출연기본금	118,292
(1) 전신전화보증금	116	1. 설립시기본금	73,176
(2) 기타자산	1	2. 기타기본금	45,116
III. 고정자산	118,192	II. 적립금	12,006
1. 유형고정자산	118,192	1. 장학적립금	365
(1) 토지	9,026	2. 퇴직적립금	3,028
(2) 건물	59,604	3. 기타적립금	8,613
(3) 구축물	5,486	III. 운영차액	6,935
(4) 기계기구	15,259	1. 보기이월운영차액	4,115
(5) 집기비품	4,506	2. 당기운영차액	2,820
(6) 차량운반구	837		
(7) 도서	8,347	기본금총계	123,323
(8) 박물관유물	4,527		
(9) 건설가계정	10,475		
(10) 감가상각누계액	-100		
자산총계	158,206	부채및기본금총계	158,206

■ 외부감사의견 :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1998년 2월 28일 현재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및 법인이 설립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재무상태와 동월로 종료되는 1997회계년도 1년간 재무운영 내용을 사회기준 제무·회계원칙 및 동 원칙에 대한 특례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니다.

1998. 5.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찬하

사설

새로운 발전의 전기 마련하자

민주적운영이 외대발전의 길

지난 8개월 동안 외대 구성원은 나라으로 떨어지는 아픔을 맛보았다. 연초에 재단의 이권싸움에서 시작하여 학교가 어수선해지더니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며 한바탕 난장판을 치른 것이다. 급년 들어 각 대학들이 교육개혁 및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 대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소모전을 치르며 허송세월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 학기에 새로운 재단이사진과 새로 선임된 총장으로 학교 정상화 및 재도약의 국면을 맞이하였으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의 하내 분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정치 모리배들이나 행할 수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상아탑에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목격하였다. 그러한 일들이 과연 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입지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문해보아야 한다. 학자나 지성인의 양심은 차치하고 법부의 입장에서 보아도 정체불명 조직(?)들의 행동거지와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이었다. 고성과 억지 대신에 학자의 절차탁마와 양심의 목소리를 택했어야 했다. 또한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수효의 대학 구성원들이 묵묵히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와 발전을 위하여 정당하게 노력해 왔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의 위상은 그 동안 추락을 계속해 오다가 근래에 들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책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제 우리 대학의 전 구성원은 지나간 아픔을 속히 잊고 재도약의 불씨를 살려내는데 매진해야 한다. 신임 변형윤 이사장은 새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재단이 학교를 지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우리 대학을 앞서가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여 외대인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조규철 총장은 취임사에서 오로지 대학 발전과 개혁을 위하여 매진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총장 경선 시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2차 외대발전 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규철 총장은 외대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공익성과 공공정신 준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민주적 대학운영, 외국학 특화로 외대의 정체성 확립 등을 제시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였다.

우리 대학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 일찍이 외국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 분야에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여 세계화에 기여해 온 우리 대학이 다시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특성화 된 전문 교육기관의 몫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 교직원,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의 선배들이 쌓아온 빛나는 전통을 되살릴 때 우리 대학은 다른 사학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을 이끄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명문사학으로 다시 우뚝서야 한다.

교육부부터 개혁을

"부실한 교육여건과 방만한 학교운영을 시정하지 않고는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폐쇄를 결정하였다"라는 짧은 이 한 문장을 신문을 통해 접했을 때, 혹시 우리 학교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한려대·광주예술대 폐쇄'라는 제목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려대학교의 설립자인 이홍하씨는 현재 광양대학교, 서남대학교, 광주예술대학교 등 4개 대학을 포함, 3개 고등학교 및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91년부터 거의 한 해에 하나씩 학교를 설립해왔으며, 각 대학 총장 및 이사들을 대부분 이홍하씨의 친인척으로 구성하여 진휘를 저질렀다.

한려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이 광양대학 학장의 대출 이자를 갚는데 유용되거나 타 학교의 건설비용으로 지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을 벌이며, 학교공금 409억원을 횡령하였다. 학과 사무실과 조교, 수위가 없는 이런 부실 운영학교에 교육부는 97년 3월에 또다시 같은 설립자에게 광주예술대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내려진 이번 조처는 교수충원과정의 비리, 부실한 재단운영·재단 내 분규 등 세가지 사학재단 비리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홍하씨가 거액의 등록금을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러서 야기된 이 사건의 피해는 모두 학생과 교수만 져야 하는 것인가?(이홍하씨는 병 보석금 1억원을 내고 석방되어서 다시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한려대·광주예술대 폐쇄조치에 대하 정부, 특히 교육부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사립대의 범죄주범은 악덕재단과 이사장 및 그 하수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전 국민, 아니 최소한 대학구성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그것을 감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교육부 관계자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거짓말인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믿어 주더라도 이미 밝혀진 범죄행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 범죄집단을 옹호하고, 같은 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가? '역대 정권들과는 다르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다면 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학생들의 수업거부·시위·서명 등으로 이루어낸 비리 재단 이사진 퇴진이후 그 자리를 채우는 관선 이사진들 때문에 더 학교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는 무엇때문인가? 혹시 약 2년 후 즘 박승준 전 전무이사가 '외대는 내 재산이야'라고 외치며 외대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제발 대학 개혁한다고 학부제나, 대학자율화니라는 허울좋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교육부부터 개혁을 하고 반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신우식(동학·마인어 4)

학생회관을 학생회관 답게

며칠 전 학생회관 3층 자판기 옆에 있는 캔음료수 창고가 파손되고 그 안에 있던 음료수 박스가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다. 또 며칠 후에는 학생회관 1층 공중전화기가 파손되어 땅에 굴러다니던 사건이 있었다. 이제 학생회관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술먹고 싸움을 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일은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더불어 학생회관 곳곳을 둘러보면 갖가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누구하나 청소하는 사람없이 썩어가고 있다. 지난 1학기 우리 외대인들이 벌였던 투쟁은 외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학교를 자신의 사유물로 여기며 외대발전을 가로막고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하던 박승준 전 전무이사를 축출하고 전구성원이 개혁과 발전의 토대를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제 외대는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 외대인과 우리의 자치공간인 학생회관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되짚어보자.

학생회관은 우리의 자치공간 또 하나의 교육현장이다. 그리고 7천 외대인 모두를 위한 곳이다. 학생회관을 학생회관답게, 이제 그 모습을 함께 바꾸어 볼 것을 외대인에게 제안한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하여 학생회관을 깨끗하게 하자. 학생회관 3층의 과방 중에는 거의 쓰레기잡과 다름없는 곳이 많다. 들어가면 쓰레기 씩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 어쩌다 청소를 하더라도 캔과 종이류, 병 등이 아무렇게나 비닐에 담겨 버려진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는 아저씨들께서 직접 손으로 골라내야만 한다. 분리수거를 통하여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우리의 자치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자.

둘째, 학교기물을 함부로 파손하지 말자. 학생회관 3층 남자화장실은 기물파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세면대와 소변기가 항상 파손되고 복구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의 시설은 우리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모든 외대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발 도난사고가 없도록 하자. 학생회관에서는 화장실을 다녀올때도 가방의 도난을 걱정해야 한다. 외부인들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대담한 음료수 창고까지 털려지고 있다. 박승준과 같은 도둑심보를 점의로운 우리 외대인들이 조금이라도 닮아서 되겠는가?

외대는 변하고 있다. 이제 외대의 변화를 일구어낸 주체, 우리 외대인의 변화로 학생회관을 바꾸어보자.

제성훈(서양·노어 4)

책을 소중히 간직하자

9월 1일 개강일 나는 학교 도서관에 갔다. 하지만 개강에 대한 기대감은 그날 아침에 깨어 졌다. 내가 가방에 넣어 두었었던 사전이 사라졌었던 것이다.

본인은 전공이 '러시아어'인 관계로 사전을 여러 개 가지고 다니는데 그 중에 '러시아-한국어 사전'(주류 출판사)이 없어졌다. 처음에 몇 번 찾아보다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집에도 갔다 오고, 주위 여러 책상을 둘러보기도 하였지만 사전이 없어졌다는 것은 확실했다.

아마 러시아어를 한 번쯤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노란 색 표지의 그 사전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참 생각한 후 어쩔하지만 책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새책을 사기로 결심했다. 그렇지만 어느곳도 사전이 절판되어 판매되지 않았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침계한 헌 책방을 한집 한집 들리면서 간신히 책을 구입할 수 있었다.

나의 개강 한 주는 이렇게 책 찾느라고 다 보내었었다.

비록 개강 첫날에 사전을 잃어 버려서 며칠간 공부도 못하였지만 오히려 사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흡져간 사람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책을 소중히 간직하고, 잃어버리기 전에 소중히 책을 간직하는 외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정국(서양·노어 4)

돈을 갖고 튀어라

-박중훈-

내년 휴학생도 대폭 증가 할 걸.
-삐째라-

등록금 인하하라! 장학금 확대하라!
-당연이-

때먹은 돈이나 내놔라!
-나는 굶는다-

차라리 다 짤라라!
-정리해고자-

나는 안 낼꺼야!
-고집불통-

백지 대자보

주제: 내년 등록금이 대폭 인상 된다는데(정부지원금 삭감 등의 이유로)

지금도 사립대학중에서도 비싼편인데 등록금을 올린다니 재단이 있는 학교인가? 아닌가?
-재단사-

안돼, 올엄마 죽는단말야. 어무이…
-어느 97학번이-

오르면 불지른다!
-10대불량청소년-

전부들 휴학하지 뭐!
-교학과 앞에서-

그래, 그럼 육성수같은 비리교수한테 받은 돈 뱉어내라면 되지. 걱정은…
-낙관론자-

한 교수의 기다림

박 재 우
〈중국어과 교수〉

덕성여대 사학과 한상권 교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을 것이다. 한 교수는 그간 사학재단이 교수재임용제를 악용해 비판적인 교수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대표적 예로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월 덕성여대에 관선이사진도 파견되었고, 한 교수의 복직소식이 신문에 난지도 몇 달이 지났으니 많은 분들이 한 교수는 이미 복직되어 온전하게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2학기 개학이 시작된 이 순간에도 한 교수는 아직 복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찌 그럴리가!? 하고 의아해 하는 분도 있겠지만, 덕성여대 구 재단권력이 아직도 막후에서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러한 해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학 현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게 된다. 한 교수의 복직문제는 상공적으로 여론화된 경우인데도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 구성원들의 민주역량으로 재단개혁의 단초를 연 우리 대학의 경우는 정말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사학재단 개혁의 전범이 되어야 할 소명 또한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닐까?

교수신분보장협의회는 노정권이래 지금까지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의 수를 3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정부가 들어선 금년 3월에 탈락한 15명이 포함된 숫자이다. 재단의 무능과 전횡에 항의하는 서원대교수 9명 파면에, 6명 재임용 탈락 및 침주대 교수협의회 회장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아직도 이 문제의 해결이 요원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교수재임용제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신체제가 기승을 부리던 1975년, 비판적인 지식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된 이 제도는 많은 해직교수를 낳았다. 우리 대학 변형윤 신임 이사장도 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탄압에 의해 4년간 해직당했던 분이다.

필자도 5, 6공 시절 "재임용 탈락되면 어쩌나"하는 긴장감 속에 서명 교수 대열에 동참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후 교수재임용제는 폐지의 여론이 높았으나 90년 3월 국회는 사학재단연합회의 강한 로비에 말려 다시 현재의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통과시켜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사립대학 재단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게 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교수들에게만 철밥그릇을 달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할 것이다. 지난 8월 초 헌법재판소에서 교수재임용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라면 이제 교수재임용제는 정부나 비리재단에 비판적인 교수에 대한 탄압수단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실적에만 근거한 철절한 심사제로 바뀌어야 한다.

오직 학문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만 운용되어져야 한다. 정치민주화는 되었다고 하나 사회각 분야 무수한 작은 독재권력들에 의해 사회민주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구와 교육성과는 우수하나 비리와 전횡의 재단에 밉보였다고 해서 추방된 한 교수같이 억울한 해직 교수들의 기다림을 이제 끝장내야 할 때가 아닐까.

흡산은 HUFS(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의 준말입니다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① 제한 없음 ② 이러 저러한 주제중 한 - 반의견
- 매수 : 200자 원고지 4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68)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에이텔, 나우누리)이용

학내여론수렴의 광구역을 다하고자 매년부터 특정주제를 가지고 외대인의 <찬반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펼쳐보십시오. 찬반주제 : 준법서약서

「지난주 외대학보를 읽고…」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신(新) 노사관계가

김대중 정권은
대립이 아닌
협력과 양보의 노사관계라는
신(新) 노사관계를 표명하였습니다.
고통분담도 하고 재벌도 개혁하겠다 그랬습니다.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도 엄중히 다스리겠다 했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신(辛) 노사관계?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일(목)
회사측의 고용협약파기로
농성에 들어간 만도 노동자 2400여명을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으로 연행해 버렸습니다.
노사협약을 어긴 회사측은 본체만체하고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만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정부의 노동정책, 신(辛) 노사관계 아닌가요?

만나보기 - 변형윤 신임 이사장

"학교에 득되는 재단 만들겠다"

취임사에서 재단운영의 5가지원칙을 표명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

서울대에만 40년 넘게 있다보니 사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대학이 정부나 재단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수나 학생의 의사가 잘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이사장이 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 교수나 학생들이 바라는 바가 합의되고 그것을 총장이 집행하면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재단의 역할을 학교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중심을 두겠다는 말인가

재단은 지원해주는 역할을 중심으로 하고 총장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 많은 재단의 과도한 간섭을 줄이겠다는 것이지 할 일이나 권한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다. 민주화의 방향에 비추어 이나라고 관단되는 상황에서는 개입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된 재단의 역할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재단에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높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니, 학생들이 이 부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나는 그중에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민주적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협의회의 제도화와 학생, 직원 등 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완전한 형태의 총장직선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나는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 서울대의 교수회의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 그때는 교수회의가 의결기구로서 명실공히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다. 그러나 군사정변 이후 교수회의는 심의기구로 전락해 버렸다. 교수협의회라는 명칭도 교수회의가 의결기구화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체계다. 그러나 총장직선제는 교수들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 대학은 역시 교수가 중심이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교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다. 그리고 직원들은 교수와 학생이 학문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교수들이 그들의 의사를 듣고 잘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나 직원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상설위원회나 대학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이 직접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 물론 이상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내가 구성원들을 최대한 만나면서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체계가 성립하지는 않더라도 요구는 다 들고 받아주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기다려 주었으면 한다. 그래도 안되면 하는수도 있겠지만. 단정적으로 '이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조금 더 다가가보도록 하자.

현재 파악된 동원재단의 자산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재단전입금이나 투자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자산파악은 현재 실무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확실히 파악이 되면 잘 운영해서 적은 액수라도 학교쪽에 최대한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공개의 원칙에 의거해서 풀어갈 것이다. 예결산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다. 직접 열람을 가능케 하느냐 마느냐는 실무자들에게 달렸으나 이사장으로서 재단이 거리낄 것이 없으니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입금의 경우 이제까지 재단이 학교에서 돈을 펴가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재단이 조금이라도 학교에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재단본연의 모습일텐데도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투자계획의 경우 총장이 현재 학교발전방안이나 재원마련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투자문제는 장기적으로 몇 년이 걸리는 문제니 우선은 조그맣게 학생장학금 확대나 교수들 연구비 인상 같은 것이나 할 것이고 큰 문제는 나중에 해결할 것이다.

관선이사체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또 관선이사가 책임있는 운영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은 내가 관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에 의해 외대의 관선이사를 맡게 됐고 임기 또한 그러리라 본다. 나로서는 학교가 안정되면 그 때 관단에 의해 적당한 인수자에게 재단을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우리 이사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고 그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숙경 전이사장이나 박승준 전 이사가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구성원의 우려가 상당하다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얘기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교육부에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만하다고 관단하면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전 이사장의 경우 참립자의 아내이기도 하니까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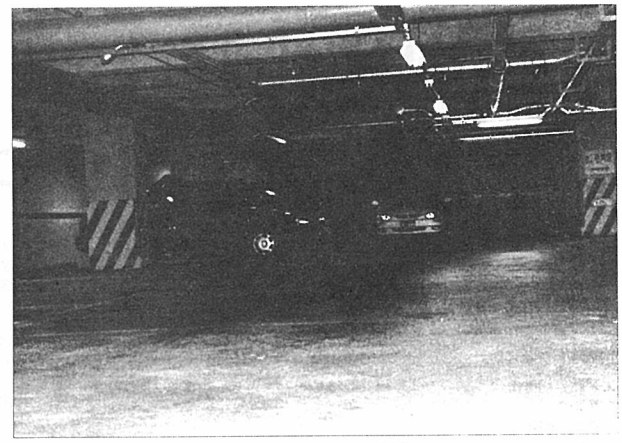
'외대정상화협의회'라는 모임의 주장을 접해 본적이 있는가

그 단체와 공식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으나 그들의 주장은 대강 알고 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왜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느냐는 것이다. 학교상태가 비정상이라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보낸 것 아닌가. 그러나 주장하는 행위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없겠나. 나의 원칙은 누구든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것이다. 그쪽에서 요구하면 만날 수는 있다.

총장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렸을 때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호텔에서 기다렸으나 결국 들어가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는 않게 본다. 이사회를 열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꾸 교관을 시키면 안되지 않는가. 주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도리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안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다.

박윤정 기자



불편→불법

학교 곳곳에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서울배움터 교수연구동 지하주차장은 항상 공간적 여유가 있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앞이나 학군단 건물 앞의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차량이 가득차있어 좀은 서울배움터를 더욱 비좁게 하고 있다. 이는 교수연구동 지하주차장이 학교밖에서 진입하기 불편하고, 지하라는 조건때문에 교수·직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임승희 기자

"비리교수에겐 수업 못 받는다"

수업재개에 학생반발… 조속한 징계 요구

재단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박승준 전 재단 전무이사와 유착했던 교수들의 수업 재개 문제로 양 배움터 학생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본보는 이를 밀착취재하고 학생들의 동향을 알아봄으로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 수강신청기간 동안 학생들은 재단비리 문제를 일으켰던 몇몇 교수들의 수업이 지난 학기에 이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대자보를 붙이는 등 재단비리 문제 완전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정문에 붙여진 대자보는 '부정 편입학문제를 일으킨 육성수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다른 재단비리 연루 교수들의 수업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양배움터 총학생회는 재단비리 척결 투쟁 중 하나로 '구악일소 없이는 외대발전 역시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용인배움터 19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박민정(동구·체코어 4)양은 "그토록 비리많은 교수가 신성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며 "학내에 재단비리 문제의 싹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고 답했다.

이 문제는 대학당국에서 관선이사 파견과 총장 선임 문제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 재단비리 관련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면 관련 교·직원들의 인사 배치도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수들의 수업시간 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배움터 교무처 김형래 주임은 "대학당국에서 징계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관련교수들을 징계해야 '비리교수는 교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관련교수들 역시 행정상으로 다른 교수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 소집후 관련 교수들이 수업을 못하게 될 경우 이 교수들의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대학당국의 좀 더 빠른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여론도 높게 일고 있다.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첫날인 오늘 이후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학당국의 '구악일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생피해 예방을 위한 빠른 조치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소집할 것임을 밝혔다.

우혜나 기자

취재낙수

학생처의 섣부른 행동

개강후 용인배움터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학생회 일꾼들의 선전활동, 각 동아리들의 신입회원 모집 선전으로 분주하기만 하다.

이 분주함 속에 서강학대(서대) 학생회의 '조규철총장 아들의 편입학 비리의혹 진상을 규명하라'는 플랭카드와 전 총학생회 기획부장 명의의 '조규철총장 선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수거, 훼손한 학생처 간의 마찰이 있었다.

특히, 전 총학생회 기획부장은 학생처 앞 복도에 '조규철 총장 선임을 반대한다'는 대자보를 붙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학생처는 이 대자보를 찢었다.

이 사건으로(대자보의 내용을 떠나) 학생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한 학생처도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자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표현물을 훼손하기전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경로를 알아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쓴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로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이런 문제조차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풀려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학생들을 위한 행정'인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류재석 기자

정부수립 50 국가보안법제정 50

건국 50주년을 맞아 제 2의 건국을 이루자고 떠들석합니다.

지나온 50년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찬란한 역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50년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내 민족, 내 형제를 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역사였습니다.

폭압적 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해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염원하던 수많은 우리 민중을

피흘리게 한 것도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도 뭐가 캥기는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노동자와 청년 학생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50년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올해를 국가보안법 철폐 원년으로 만듭시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경제성장의 열매, 없는자에겐 '그림의 떡'

경제 성장제일주의,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경제성장의 환상 ① 경제성장이 만인의 부(富)를 보장할 수 있는가
3. 경제성장의 환상 ② 세계경제질서 내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매진하면 한국이 경제대국 될 수 있는가
4. 경제성장의 환상 ③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시장이데올로기의 절정, 세계화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5.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인간중심의 성장, 만인을 위한 경제제제, 약육강식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립적 경제토대를 고민하자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자본과 기술이 빈약하므로 오로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풍부하게 양성해서 값싼 상품을 만들어 무조건 수출해 외국돈을 많이 벌어야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사회가 온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어오면서 옳다고 믿어왔던 논리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30여년동안 이 논리에 따라 수출지상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성장을 위해 온 국민이 열심히 매진한 결과, 국민총생산(GNP)과 해외수출액은 날로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의 소비수준도 증가했다.

그렇다면 30년동안의 고도성장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가?

경제성장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조건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측은 주로 정부와 재벌, 경제학자, 전문직 종사자, 금융업자 등 아무런 문제없이 식탁에 음식을 차릴 수 있는 20%도 안되는 부유층이다. 그러나 나머지 넉넉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무엇보다 최저생활임금을 보장해줄 수 있는 일정수준의 일자리와 가족들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 자식들의 교육 등 안정적 생활조건을 원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유하지 못한 다수에게 선심쓰듯 설득한 '경제성장'이 실제로 그것을 주장한 부유층에는 이득이 되지만, 부유하지 못한 다수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조건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경제성장의 본질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이 물밀듯 밀려왔다. 이러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이미 형성된 국내 저임금노동력과 결합되면서 경제전반을 급속한 성장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외국자본과 결탁한 재벌기업들이 비대한 몸집을 드러내었다.

이들 재벌기업은 국내시장의 보호와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해나갔다.

그러나 고도성장은 곧 경제잉여의 대외유출 확대에 다름 아니었다. 당시 성장의 견인차구실을 했던 수출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이라는 국제하청생산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 결과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출혈수출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자본은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면서 가능한 한 판매가격을 높이면서 제조원가를 낮추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수출자체가 국제하청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수출가격 결정은 일방적으로 외국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조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주어진 외제 생산설비와 외제부품을 사용하는 한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남는 것은 인건비, 즉 임금을 낮추는 것뿐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자본은 임금을 낮추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그 결과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생계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임금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도 경제성장의 덕으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혜택을 받으면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저소득 국가였던 우리나라에 현대적 공항과 초대형 유조선, 고속도로, 텔레비전, 그리고 얼마 안되는 여유있는 계층을 위하여 건립된, 세련된 전자제품이나 패션제품을 두루 갖추고 에어컨 시설까지 완비된 쇼핑센터가 만들어졌다.

넉넉치 못한 다수의 생활이 절대적 의미에서 악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부유층은 경제력 및 정치력을 강화하면서 부를 쌓아간 반면, 광범한 임금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그에 따른 소외가 심화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각 개인은 한정된 환경적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돈을 많이 가진 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경쟁에서 이긴다. 경제성장은 빈곤층의 수입보다는 부유층의 수입을 더 빨리 증가시켜왔던 것이다.

1인당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행해지는 재분배가 없다면 경제성장으로 인해 팽창된 총액은 빈곤층보다는 이미 부유한 계층에 훨씬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주고, 빈부간의 절대적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나아가서 빈곤층에 대한 부유층의 권력 특혜를 증강시킨다.

현재의 어려움, 경제성장으로 해결가능한가

그러나 이 모델도 1990년대에 이르러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진국으로부터는 덤핑관장을 받는 등 통상압력에 시달리게 되었고, 경쟁국이나 후진국으로부터는 끊임없는 가격경쟁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운동의 급성장으로 더 이상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병영적 노동통제 등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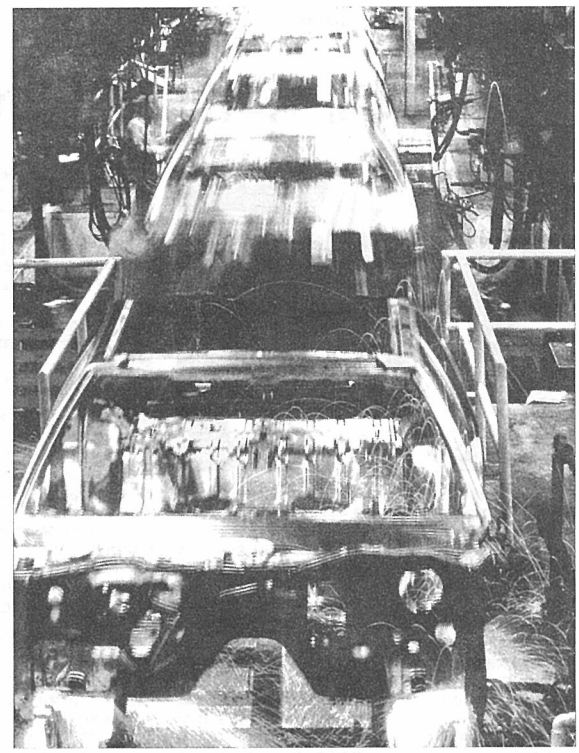
90년대 초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으로 1백일 계획, 신경제계획, 세계화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것도 둔화되는 경제성장률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목표아래, 개발독재국가 하에서 특혜적으로 성장하였던 재벌들에게 다시금 특혜적 지원을 하는 '신성장노선'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정부는 성장론에 입각한 대재벌정책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했는데 이는 재벌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성장론에 입각한 물가정책으로 가격자율화를 추진하면서 물가불안을 부채질했다. 아울러 성장론에 입각한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전략산업'만을 육성하면서 농어업 등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해쳤다.

결국, 정부는 전체 국민경제가 IMF에 의한 사실상의 관리체제하에 놓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사실상 외국에게 넘겨주게 되어버렸다.

IMF와 그의 요구에 철저히 따르는 김대중정부는 단기적으로 긴축정책을 통해 저성장, 고실업이 불가피하지만 국제수지적자를 해소하면서 시장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벌지배체제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자유화와 대외개방정책으로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 장기적으로는 고도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진작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국민들을 몰아간 '경제성장'의 결과가 다수 국민들을 위한 생활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느냐의 문제이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에 대해서 정부가 사후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구조조정이 성공함에 따라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도적인 실업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과연, 이 논리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일까?

외국자본이 침투하기 쉽게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세계경제질서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켜, 말 그대로 강한 나라에 약한 우리나라를 잡아먹히게 하려는 뻔한 수작인 IMF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정부도 웃기지만, 이 새로운(?)논리 속에서도 우리사회의 궁극적 지향은 고도성장의 길이라고 몰아가는 구태의연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으로 재벌과 금융의 지배구조를 개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정책이 관철되면 기업과 금융부문에서 미증유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독점화 경향은 보다 심화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인수합병과 독점화운동은 재벌들 상호간에서만이 아니라 외국 독점금융자본과 국내재벌 사이에서도 본격화할 것이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지배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조건하에서 정부와 재벌 또는 외국독점자본간의 유착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것이다. 한 마디로 그들의 힘이 훨씬 더 배가되어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설사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 경제성장률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고용은 창출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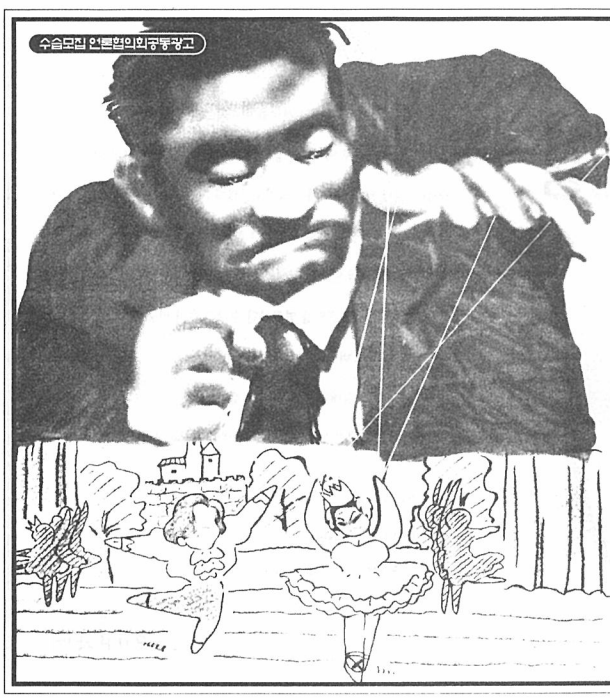
산업예비군의 유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로써 경제위기 시기에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대량실업사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실업률이 20%를 상회하는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해고조건이 완화되어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제는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경제가 잘 돌아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조차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재벌에서 말하는 대책없는 '경제성장'의 논리로는 지금의 어려움을 결코 이겨낼 수 없으며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해원
〈21세기경제문제연구소〉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외대학보, 「외대」교지, The Argus가
2학기 수습위원 및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문 의

외대학보	서울 961-4152	용인 0335)30-4112
「외대」교지	서울 961-4409	용인 0335)30-4167
The Argus	서울 961-4153	용인 0335)30-4113

해외 통신 -미국의 '정보제국주의' 야심을 파헤친다

"정보로 세계를 장악하겠다"

미국의 정보제국주의, 세계 민중 반발 무시한 '백일몽'

경제·정치·군사·문화적 패권을 가진 미국은 자신의 입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정보 매체를 통해 미국의 가치관을 유포, 전세계 민중의 자연적, 경제적, 정신문화적 가치관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은 전 정보매체를 통해 전세계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야심을 알 수 있는 글이 될 것이다. (르 몽드 디플로마띠끄) 98년 8월호에서 번역, 전재하는 글입니다.) 편집자

미국이 누리고 있는 초강대국의 조건을 어떻게 최적규모로 조절할 것인가? 워싱턴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제국의 정책"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하여 토론은 오로지 이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수단과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하는 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공격적인 보수주의 이론가인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은 "미국 제국의 출현"을 자명하고 당연한 일로 간주한다.

크리스톨은 이렇게 쓰고 있다. "가까운 장래의 어느날, 미국 국민들은 문득 자신들이 '제국의 민족'(제국을 소유한 민족을 뜻한다 : 역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서둘러 자신의 독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러나 이러한 '제국건설'의 백일몽보다 한층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저러한 기획(프로젝트)들이다.

이것은 다가오는 시기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구조를 부설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정보-미디어 복합체이다. 정보-미디어 복합체는 문화적인 힘과, 나아가서는 권력 그 자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지배라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최대의 효과를 가진 수단이다.

1996년 조셉 나이(Joseph S. Nye)와 윌리엄 오웬스(William A. Owens)—전자는 전직 미 국방부 부장관이며, 후자는 전직 합동참모회의 부의장이다—는 "정보화 혁명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나라는 우연하도 마침 미국이다"라며 "예전의 동맹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핵무기 패권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보에 관한 패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로, 미국이 우월성의 점정을 구가하는 것은 20세기가 아니라 오히려 21세기에서이다. 정보는 국제왕국의 신(新) 화폐이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하드웨어적 및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정보화를 이용하여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 역주)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데이비드 로쓰코프 또한 이와 비슷한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우선 만약 세계가 단일한 언어를 채택한다면 영어가 그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만약 세계가 정보통신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의 안전과 질(質)에 관해서 공통의 규범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규범들은 미국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만약 세계의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음악에 의해서 상호 연결된다면 그렇게 연결시키는 프로그램들은 미국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여러 종류의 가치들이 뒤섞어져서 공통의 가치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들은 미국식 가치들의 모습을 닮은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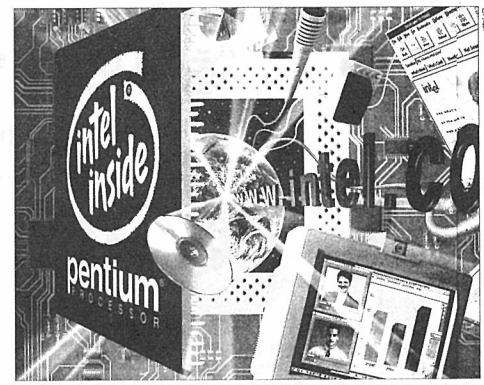
이러한 해석은 분명 환상적이고 오만방자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엄연히 정보화 문제에 관한 워싱턴의 정책상의 결정들을 채색하고 있다.

최근 여러 해를 거치면서, 광(光)케이블이 깔린 나라를 만들고 통신망으로 연결된 세계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는 이미 현실화 되었다. 1993년 9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표된 '국가정보화 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NII)'은 마치 그것이 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악들에 대한 완벽한 '전자적 해답'인 것처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류를 진보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확실한 수단인 것처럼 설명되었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정보의 자유'라는 교의가 무리없이 통용되었다. 그리고 이 교의는 대외원조, 보조금 지급, 거여하는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에 대해 정치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무, 격려되었고 또 지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제(美製)" 정보 및 문화 생산품들이 전세계를 철저히 지배했다. 그리고 또 텔레비전과 영화의 화면, 뮤지컬 제작물, 오락장, 사건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등에서는 영어가 전입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듯 단기적으로 보자면 미국제 초국적 자본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경제력과 '멀티미디어 상업 환경'이 환경에 미국이 서 있는데-에 대한 미국민들의 극히 수용적인 태도는, 미국이 전자공학의 지배력에 의거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워싱턴의 백일몽을 고무해 줄 수밖에 없다.



군사력으로 전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보의 힘은 권력 자체를 제공해 줄 만큼 막강하다. 미국은 정보를 지배하여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정보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컴퓨터회사 Intel의 광고장면

그렇지만 좀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보자면 사정은 이와 사뭇 다르다. 그 누구에게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 군사적 힘의 체계가 전 세계민중들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 경제적, 정신 문화적 등의 자원들에게 강요하고있는 바 저 괴상망측한 불균형들은 장기적으로는 연쇄적인 경련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리고 체계라는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허버트 실러
(Herbert I. Schiller)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통신학과 교수〉

이 책

동아시아 발전모델, 더이상 대안일 수 없다

"우리는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 이는 국민들의 분수 모르는 과소비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국민들의 탓으로 호도하는 정권의 논리가 먹혀들고 IMF가 도래한 후 금모으기 운동이 줄을 이었다. 한국의 경제위기가 단지 국내적인 문제, 국민들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한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아시아국가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위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한국정치연구회에서 펴낸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에서는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위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경제위기의 내부적 요인을 고찰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공통적 특징을 찾아내 '동아시아 발전모델' 위기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동아시아 국가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2차대전 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후 세계주도권을 가지게 된 미국은 반공블록 구축과 서구 경제 복구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이 책은 설명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식민지 자본주의국가를 만들기위한 미국의 노력이 시작되었고 탈식민지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하였는데, 그 대상이 바로 동아시아 국가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친미정권 수립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첫 번째 공통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친미정권이 수립된 동아시아국가는 미국의 원조를 통해 급성장 했고 '국가주도형 수출경제체제'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대외종속적 경제성장이었음은 물론이다.

결국 투기성 금융자본의 자본시장 지배로 외환위기가 닥쳐오자 이를 해결할 경제적 토대가 없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IMF시대를 맞게 되는데 미국의 IMF처방에 대한 이 책의 입장은 단호하다. IMF 프로그램 자체가 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제반 권리는 축소시키는 것에 주요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IMF 프로프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IMF체제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외세와 자본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힘, 자주성을 되찾는 것이며 더불어 IMF 프로그램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국제금융 자본의 지배를 견제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반대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김겸신 기자

우주의 이치와 인간의 공동체가 만날때

돌연변이 식품, 우리 식탁에

권외점 안 냉장고에서 토마토 주스를 꺼낸다. 마개를 따서 한 모금 꿀꺽 마시고는 무심결에 병에 붙어 있는 원산지 표기를 본다. 스페인산. 지구를 한바퀴나 돌아온 토마토를 마시고 있다. 먹거리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재배되고 수송되어 먹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심품이 지구 반바퀴 쯤을 돌아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지구가 긴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유전자조작식품을 먹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은 어쩌면 주변적 이야기일 수 있다.

유전자조작식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작물들은 야생종은 아니고 모두 유전자가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 즉 전통적인 품종개량을 위한 육종방식에 의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섞고 고른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설명은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나쁜 '진실'이라고 한다. 즉 분자생물학 수준의 지식과 실험 기법을 가지고, 원하는 특정 유전자만을 분리하여 다른 유기체에 집어넣어 원하는 형질을 얻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은 전통적인 육종기술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방식이 아니다.

자연이든 사회든 무엇인가를 환원하여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근대 과학은 유기체가 원하는 형질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유전자를 삽입, 교체,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콩에게 제초제 저항성을 부여하고 토마토의 과숙을 방지하도록 특정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해서, 과연 유전자 환원론이 예상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가장 정직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선한 동기로 인류의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유전자조작식품을 개발하고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몇십만 몇백 만년의 진화의 과정을? 단번에 뛰어 넘어 실험실에서 조작된 유기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유전자조작식품이 가진 의도하지 않은 알러지 반응, 독성 및 유전자조작식품 생산에 필수적인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에 의한 치료 효과의 반감 현상이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다. 또한 유전자조작된 유기체의 환경 방출에 의한 생태계의 혼란과 파괴에 대한 비판적인 과학자와 환경단체의 경고는 묵시론적인 것이다.

게다가 유전자조작식품이 가진 도덕적으로 선한 동기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자조작식품은 대부분이 영양가의 증가와 같은 목적보다는 가공과 저장의 편리성에 맞추어져 있다. 식량·식품 산업의 다국적 기업의 이윤 증가를 위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유전자조작의 위험성을 감요받고 있는 것이다.

한재각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특별장학금 신청 및 선발 안내

우리학교에서는 보호자의 실직 및 수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98학년도 제2학기에 특별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① 실직자 자녀 ② 수재민 자녀 ③ 생활보호대상자
   가. 신청방법 : 학생처에 비치되어 있는 특별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제출 서류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 거주자가 다를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해야함)
   - 실직확인서(노동부 각 지방사무소 발급)
   - 수해 사실 확인서(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 보호자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사본
   - 기타 각종가계곤란 증빙서류 (ex. 부모의 장애여부 증명, 지병으로 인한 진단서, 장기입원 증명 등)

   ※ 위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2. **신청기간** : '98. 9. 7(월) ~ 9. 10(목)
3. **선발방법** : 신청서류 및 면담에 의거 가계곤란 순위를 정하여 순서대로 배정, 선발
4. **선발인원** : 각 캠퍼스별 00명
5. **장학금액** : 600,000원
6. **장학생 발표** : '98. 9. 11(금)
7. **기타 행정사항** : 타 장학금, 국민은행융자, 각종 대여장학금 수혜자는 신청자격 없음.

1998. '7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98학년도
학생예비군 기본교육훈련 실시

'98년도 우리대학교 직장예비군 기본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해당 학생예비군은 학과(대학원생은 각 대학원)게시판에서 본인의 훈련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비상계획관실(예비군 본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바랍니다.

1. **대학(대학원)학과별 교육일정**

일자	교육대상학과	훈련장소
9월(월)	서강대학 (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이태리어과, 포르투갈어과)	공곡훈련장 (동대문대운동장)
9월(화)	서강대학(사회과학부인외과, 스페인어과)와 동국대학 전체	"
9월(수)	상대대학 전체	"
9월(목)	법대대학 전체, 사회과학대학 전체, 사범대학 전체	"
9월(금)	장교, 장·단기하사, 각 대학원 전체	

2. **교육대상** : 일반하사, 병-연령 1~5년차, 장교, 장·단기하사 → 전역 1~7년차 학생예비군.
3. **교육훈련 제외대상자**
   가. '98년도 전역 예비군
   나. '98년도 주민등록지에서 6시간이상 교육을 필하고 기타 보충교육훈련에 불참사실이 없는자
   다. 전역 6~8년차(일반하사, 병) 8년차 이상(장교, 장·단기하사)학생예비군
   라. '98년 8월 31일 이후 비상계획관실에 예비군 대원 신고자 ('98년 10월 8일 교육예정)
4. **유의사항**
   가. 대학(대학원)학과별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일정을 정확히 숙지할 것.
   ※ 장교, 장·단기하사 학생예비군은 9월 25일(금) 별도 학급편성 교육
   나. 수송버스 이용희망자는 06:50까지 학교에 도착바람.
   다. 개별입소시에는 07:50까지 공곡훈련장(미금시 소재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할 것.
   라. 과가차량 주차공간 없음(일의 주차시 위반차량 적발 및 견인)
   마. 대중교통 안내 : 청량리→금곡 165-3(일반), 천호동→금곡 1-3(좌석, 일반), 강변역→금곡 9-1(좌석)
   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필히 휴대할 것.
   사.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방법
   학생예비군 교육훈련 소집방법은 소집통지서를 교부 하지않고 홈보수단(학과게시판 공고, 교내 전용 게시판 공고, 화대학보 게재, 교내방송 등)으로 대체되니 착오없기 바람.
   ※ 지연도착자(예 00이후 근무대 도착자)와 복장위반자(모자, 군화, 예비군복 미착용자 및 예비군복과 모자색상이 일치되지 않은자)는 귀가조치 및 불참처리됨.

1998. 9.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장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안내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예비군(대학원 석·박사과정 포함)또는 재직중인 교,직원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출입 신고** :
   가. 입학, 복학, 편입학, 복수전공자, 재입학자 전입신고
   사유발생(등록후)14일 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대학 직장 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병사담당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직장예비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휴학 및 제적생(자퇴) 전출신고
   사유발생 14일이내에 비상계획관실에 본인이 전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전·출입 신고서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양식 : 비상계획관실에 비치)
   2) 학적변동 신고서(학적과 비치 : 복학생)및 등록금 납입영수증 (신입생, 복학생)
2. **현주소 변경시**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또는 교,직원은 현주소 변경시 비상계획관실에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규위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⑥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998. 9.

비상계획관실장

'98학년도
예비군교육 실시

'98학년도 대학직장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빠짐없이 출석하기 바랍니다.

1. **교육일정**
   1998. 10. 12(월) : 자연과학대학, 정보산업공과대학, 대학원
   10. 13(화) : 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포르투갈어과, 이태리어과
   10. 14(수) : 불란드어과, 루마니아어과, 체코어과, 헝가리어과, 유고어과, 경상대학
   10. 15(목) : 동양학대학, 인문대학
2. **교육장소** : 보병 제5171부대 3대대(용인시 운학동 예비군 교장)
3. **입소시간** : 오전 07:50분까지 교육장에 도착할 것
4. **비교육대상자**
   가) '98학년도 전역한 예비군
   나) 지역예서 8시간이상 교육이수자
   다) 일반하사·병은 6년차 이상(장교, 장·단기하사는 8년차 이상)
5. **교통편**
   가) 서울거주자 : 오전 06:50분 출발
   (출발장소 : 종합운동장 진협역 근처 주차장)
   나) 성남, 모현거주자 : 오전 07:30분 출발
   (출발장소 : 학생회관 앞 도로)
6. **유의사항**
   가) 훈련통지서는 공고로 대신함.
   (교육대상자별부 학과장실, 학과사무실 비치)
   나) 지각하지 말 것. (시간내 미도착자는 귀가조치)
   다) 군모, 군복, 군화, 고무줄 반드시 착용(복장 불량자는 귀가조치)
   라) 신분증 반드시 지참.
   마) 교육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일 이외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상계획관실로 문의바람.

※ **전화** : 0335-30-4111, 4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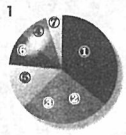
1998. 9.

용인캠퍼스 예비군 연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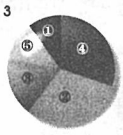
설문조사 - 새내기들이 느끼는 대학의 모습

"친구도 할 일도 이젠 찾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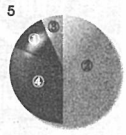
새내기 절반이상 꿈꿔 온 대학 못느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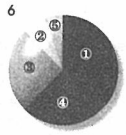
1.대학에 들어오기전, 자신이 생각하던 대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①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런 장애없이 할 수 있는 곳(36%)
②사회진출(주로 취업)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곳(13.5%)
③특듀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숨쉬는 곳('나'보다는 '우리'를 느끼게 해주는 곳)13.5%
④학문의 전당이자 진리탐구의 장(8.5)
⑤'남자셋 여자셋' '우리들의 천국' 등에서 보여주는 모습 구체적인 예 (13.5%)
⑥별 생각없이 들어왔다.(10%)
⑦기타(5%)



3. 자신이 느낀 대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①대학이 취업양성소인 것처럼 느껴진다(10%)
②수지타산을 따지지 않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기 힘들다(30%)
③내가 원하는 활동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17.5%)
④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30.5%)
⑤기타(12%)



5. 남은 한 학기는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보낼 생각입니까?
①당장 동아리나 학회, 종물패, 노래패 등에 들어가겠다(11.5%)
②이제부터 진짜 학과공부에 집중하겠다(50%)
③휴학, 군입대, 편입, 재수 등을 준비하겠다(6.5%)
④기타(32%)



6.앞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졸더 나은 대학생활을 해나가는데 '대학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게 위한 기본시설(자치공간, 예산확보 등)을 갖춰주어야 한다(36%)
②자치활동, 봉사활동도 학점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6.5%)
③수업의 내용강화를 위해 강의평가제를 확대하고, 학생이 원하는 교양과목을 확충해야 한다(25.5%)
④학생복지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26.5%)
⑤기타(5.5%)

새 학기가 시작됐다. 대학에서의 첫 학기를 보낸 새내기들에게 대학은 어떤 의미일까? 본보에서는 새내기들이 꿈꿔왔던 대학과 실제 대학생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 안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

〈조사방법〉

서울배움터 새내기 50명, 용인배움터 새내기 100명 총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리학교 새내기들은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고'(30.5%) 있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것'(3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새내기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대학의 문제는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다. 이외에도 '내가 원하는 활동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17.5%), '대학이 취업양성소인 것처럼 느껴진다'(10%) 등의 대답도 있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 새내기들이 생각하던 대학의 모습에 대해서는 '원하는 것을 아무런 장애 없이 할 수 있는 곳'(36%)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 '공동체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남자셋 여자셋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란 응답도 각각 13.5%나 됐다.

또 '별 생각없이 들어왔다'는 대답도 10%나 되어 고교 교육의 모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생각해 온 대학의 상과 현실과의 일치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5%가 '대체로 또는 전혀 틀렸다'로 답해 절반이상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내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원하는 것을 결국 찾지 못한 학생'(35.5%), '강의 후 곧장 집으로 가는 밖에서 놀자파 학생'(29%), '동아리 등 학내활동에 집중한 학생'(19.5%) 등으로 답했다.

2학기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학과공부에 집중하겠다'(50%) 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아, IMF경제위기로 벌써부터 취업걱정을 하는 새내기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그외 '학회, 문예패 등에 들어가겠다'(11.5%), '휴학, 편입, 재수(6.5%)' 등의 대답이 나왔다.

좀더 나은 대학생활을 위해 학생회와 대학당국에 바라는 점으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한 기본시설미련과 다양한 행사유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도 '학생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32.5%), '학과공부에 도움되는 활동'(21.5%) 등도 높게 나타났다.

장서윤 기자

생활시평

완전한 세민전을 위하여

'도전과 화해의 첨년마당' 98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이 그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었다. 세민전은 세계의 문화를 좀더 가까이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언어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학교육에 좀더 '현실'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위해 자신이 전공하는 언어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역사, 문화, 민족 등을 총체적으로 학습한다. 꼭막힌 강의실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아닌 실천의 현장에서 진행하는 배움인 것이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이 참가하는 행사에(물론 외대생이 분장하고 참가하지만) 정작 또 하나의 조국인 북한이 보이지 않는다. 민족의 얼굴인 통일의 일주체인 북한조차 잘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우리가 세계를 알자는 말이 왠지 공허한 것은 이 때문이다. 광양외국어대생들과 우리학교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는 세민전이야 말로 '세계축제'로서 세계를 안식하려는 올바른 모습이 아닌지.

이런 생각은 세민전 부활 때부터 학생들 사이에 있어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노력은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일례로 지난 94년 세민전 당시 만국기를 배움터에 내건 적이 있었다. 당시 세민전 준비위는 '인공기'도 다른 나라 국기와 마찬가지로 내걸었다가 이를 보도한 당시 외대학보 기자가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이를 담당했던 세민전준비위 학생은 현재까지 수배중이라 한다.

통일을 위한 작은 노력조차 용납않는 경찰의 태도 속에 세민전은 그 본연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세민전준비위는 광양외국어대학교 학생을 초청하여 세민전을 함께 치루는 방안을 고민하였다고 한다. 비록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 간의 교류는 필연적으로 '변화'와 '융합'을 가져온다. 세민전을 펼치기 위해 매년 2천명(올 세민전 준비인원이 모두 2천명이다)이 남북을 왕래하고, 이를 따라 모든 외대생이 북을 방문하게 되면 현재 남북사람들의 만남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변화를 넘어 통일로 갈 것이다.

김민석 기자

설문 분석 및 대안

새내기 이제 대학의 주인으로

함께하는 행사 등의 방안 강구해야

새내기는 없다.

1학기 초 새내기들로 북적이던 과방에서도, 동아리방에서도 그들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 지금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많은 새내기들이 대학에 들어오기 전 '대학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아무런 장애없이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TV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등의 대중매체에 의해 만들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대학의 모습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의식을 잠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새내기가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온 대학의 상과 현실이 '대체로 또는 전혀 틀리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이 사이의 괴리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새내기들이 지적한 것은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학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대학생들 또한 대학생활의 의미를 정립하는데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수지타산에 얽매이지 않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 지적됐다.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개별화, 파편화된 분위기가 대학사회에 침투해 대학의 공동체 문화가 흔들리고, 개인주의적인 풍토가 심화됨으로써 상대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새내기들은 지난 1학기동안 '대학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요즘 세대들이 상업대중문화를 수동적이고 몰개성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으나 원하는 것은 스스로 찾아 다니는 적극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 의미를 찾지 못하고 대학에 실망함으로써 2학기부터는 학과공부에 집중하겠다는 답변이 서울배움터의 경우 과반수가 넘었다. 이는 학생회나 과집행부 등이 새내기들의 다변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올바른 대학인 상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IMF로 인한 실업대란으로 취업의 불안이 겹쳐진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시기 대학의 모습을 우려하는 새내기들도 많았다.

마지막 문항으로 학생회에 바라는 것으로는 '학생복지시설 확충'이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마련'을 꼽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꾸려나가는 행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시기 '대학문화 공동화' 현상에 대해, 새내기들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대 부학생회장 이동원(3)군은 "총파업 이후 흩어졌던 학생들을 10월에 있을 '법대 30주년 행사'를 통해 모으고 가을능활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름방학 기간에 '열린학교'를 치뤘던 사범대 사무국 민창윤(영교·2)군은 "현재 '열린학교' 후속작업을 진행 중이며 2학기엔 '교육영화제'와 체육대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학생회 문화국장 이문회(사회·신방 4)군은 "단순히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행사보다는 대학내 제반 모순들과 대학인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의 행사가 필요하다"며 "이것이 대학의 올바른 상을 세우지 못한 채 흩어져 있는 새내기들을 한 두리로 묶을 수 있는 작은 시작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현주 기자

너비아니 '불고기'의 옛말로, 세계인의 문화를 소개하는 칼럼입니다

너비아니

<12>중국인의 종교와 의식구조 Ⅱ

증가하는 종교인

1949년 공산당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중국종교는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 통일전선에 이용되었다. 그래서 정국안정을 위해 사회각방면의 협조가 필요한 건국초기에는 종교를 인정했다. 그런 데 1950년대 후반부터 우파숙청시기에는 종교신앙도 투쟁대상으로 포함시켜 "종교는 민중을 병들게 하는 아편이다"라고 규정짓고,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서양선교사들이 추방되었고, 종교활동이 금지되었으며, 교회는 폐쇄되고 불교와 도교의 사원들은 파괴되거나 인민공사의 집단숙소나 작업장이 되었다.

1978년 중국이 개방과 현대화정책을 취하면서 단결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교문제에 대하여서도 다시 용납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1982년에는 헌법을 수정하여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조문에 "불신앙을 막을 수 없다"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건강을 손상시키거나 국가교육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정하여 외국종교단체의 원조나 선교활동을 봉쇄하였으며 내국인 개리의 전도활동도 금지하였다.

중국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처하는 것은 현 정권에 도전하거나 중국통일을 방해하는 집단이다. 그것은 바로 종교집단과 소수민족이다. 마돈이 티베트나 위구르 민족은 종교지도자가 바로 정치지도자로서 종교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조선족에 대해서도 한국의 충동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화 개방화를 표방하면서 종교를 계속 억압할 수는 없는 일이라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불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를 관인 종교로 그의 활동을 허가하였다. 각종교의 성직자 양성도 허가하고 기관지의 발행도 허가하였다. 이런활동에 경비지원까지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불교 도교사원들은 개방되어 관광지가 되었고 교회에서의 예배가 허락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개방된 불교도교사원은 10,000여개소, 이슬람사원은 26,000여개소, 신자는 1,700만의 소수민족이 그에 속한다. 기독교는 신구교를 합하여 약 7,500만의 신도가 된다. 기독교의 지하비밀교회가 많아 기독교측의 통계에 따르면 신자는 1억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불교도교는 신도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교세를 통계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방토속신앙까지 합친다면 그 교세는 기독교의 몇배가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을 가면 각 사원들이 대민이나 홍콩의 신도들의 지원을 받아 불상을 재조성하거나 사원을 보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도 개방사회로 나아가려면 종교의 개방도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김상근
〈중국어과 교수〉

문화여행

새책

우리 대중문화 길찾기

강준만 지음
개마고원 8,500원

매독과 르네상스 문명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책은 이렇게 인류 역사상 크게 유행하며 사람들을 괴롭혀 왔던 질병들과 당시 문명이나 사회를 밀접한 관계 아래서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병원균 또는 개인의 보건 의식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와 문명에 따라 크게 유행하는 질병도 달라짐을 역사는 보여준다. 병원균은 질병으로 발흥하기에 적합한 역사적·사회적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질병은 병원균이나 의사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문명,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시사하고 있다.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

황상익 지음
한울림 8,000원

귀에 꽂고 듣는 워크맨, 개인휴대전화, 일상화된 이런 상품들 속에서 점점 개별화돼가는 우리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 공동체 문화가 사라져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중문화가 찾아야 할 제자리는 어디인가? 저자는 우리 대중문화가 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주면서 '인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불가능함을 주장한다. 대중문화는 '사회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와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작가는 반기를 드는 것이다.

이 책은 맹목적인 편의를 숭배하는 대중문화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공연

호주 현대문학과 영화축제

지난 5일(토)부터 오는 10일(목)까지 5일간(월요일 휴관)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는 '호주 현대문학과 영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스크린 문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호주대사관과 호한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영화제에서는 단편영화10편, 장편영화4편 총14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공식적인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1.문학과 영화로의 이입 2.영화를 위한 문학 3.영화 대 문학이다.

그밖에 호주서적전시, 호주작가와 영화배우들을 초청해 국내 문인 및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다채로운 호주문화축제를 펼친다.

인터넷 따라잡기

민중가요 사이트 소개

80년대 민중가요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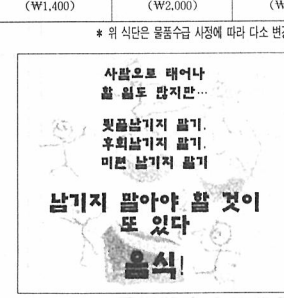
이 곳을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분은 '가요무대'라는 곳에서 묘한 말맛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는 80년대 민중가요가 소개되어 있다. 주소는 http://mooyoung.co.kr/~hyunjan/index.html 이다.

광주출정가를 비롯하여 희망의 노래까지 총 1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인상적이다. 리얼오디오 파일로 되어있다.

용인배움터 식단

구분 / 요일	중 식 1	중 식 2	석 식
월 (31일)	달걀야채볶음밥 (₩1,400)	사리곰탕 (₩1,800)	돈육김치찌개 (₩1,400)
화 (1일)	제육볶음덮밥 (₩1,400)	함박스테이크 (₩2,000)	물오징어찌개 (₩1,400)
수 (2일)	삼선짜장밥 (₩1,400)	육개장 (₩1,800)	꽁치구이백반 (₩1,400)
목 (3일)	마파덮밥 (₩1,400)	불고기상추비빔밥 (₩1,800)	바지락미역국백반 (₩1,400)
금 (4일)	김치볶음밥 (₩1,400)	카레돈가스 (₩2,000)	만두국백반 (₩1,400)

* 위 식단은 물품수급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학생식당과 용인 후복관 식당 식단은 학보사 사정으로 인해 실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조선일보 '정부수립 50주년 대한민국 50년 기념 기획기사'에 대한 문제제기

조선일보 오만함, 이제는 역사왜곡까지

후보선정 불공정 · 불투명 의혹, 여론조사 해석 임의적 · 비과학적

조선일보는 '정부수립 50주년 대한민국 50년 기념 기획기사'를 7월 중순에 게재하였다.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이 기간 동안의 인물, 사건, 문학, 영화, 수출상품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통해 현재 국민들의 의식을 알아보는 기사였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준비한 이 기획에 대한 문제제기가 기획이 끝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기획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50년 50대 인물선정과 관련된 논란

특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논란의 소지를 이끈 기사가 '대한민국 50년의 50대 인물 선정'과 '대한민국 50년의 20대 업적' 부분이다. '정부수립 이후 역대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누구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물을 선정하였는데 조선일보답게 박정희 전대통령이 1위를 차지하였다. 게다가 전두환 전대통령도 당당히 6위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요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골프선수 박세리(10위), 박찬호도 꺼어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 정치부 김현호기자는 "보통 역사적 인물 평가는 역사학자나 정치학자가 하는 양 인식되어 있지만 올해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일반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인물을 평가하였다"고 이 조사의 의미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유진 간사는 "박정희 · 전두환 두 독재자를 순위에 올려놓고 당당하게 국민들이 큰 업적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빌린 조선일보의 목소리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조선일보의 의도에 대해 조심스레 지적했다. 그는 "독재자의 취약한 정통성을 무시하고 가시적인 사업만을 국민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는 것은 현재위기와 맞물려 예전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여 앞으로 나라 운영의 지침에 참고해라라는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에 대해서 김현호 기자는 "분명 일반 국민의 평가인데 인물의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엄연한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기획은 그 의도와 함께 여론조사자체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조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은 15일자 '50대 인물' 선정 의미라는 칼럼에서 '이 조사의 대상이 만 20세 이상이라는 점', '응답자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더 인상깊게 기억하여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 이 조사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민주언론운동 통권 제27호, '독재자 1위가 한국인 역사관인가' 중에서 인용) 즉 조선일보는 내부에서 기준과 후보선정 등을 진행하여 후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부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 "분명히 오차한계 ±2.5%라 밝혔지만 월간조선 8월호에 공개된 인물 평가도를 살펴본 결과 5위 이승만(4.3%)와 6위 육영수(3.7%)로 그 차이가 0.6%에 불과하다"(미디어오늘, 7월29일자)는 평가에서 알수 있듯 여론조사의 오차한계조차 무시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 20대 업적

대한민국 20대 업적은 50대 인물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1위를 차지한 사실은 박정희 1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분명 상위를 차지한 새마을운동과 서울올림픽이 조국의 근대화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유진 간사는 "위 두 사안이 독재정권 유지에 이용당한 측면과 올림픽개최를 위해 상계동 철거촌이 대대로 철거되는 정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게다가 조국통일의 3대 정신이 수록된 7 · 4남북공동성명이 당시의 획기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권외로 밀렸다는 조선일보의 분석은 사문화를 시킨 장본인 중의 하나가 조선일보라는 사실을 불태이이러니다. 더욱이 4위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선정되었음에도 이를 유혈진압한 전두환 전대통령이 인물부문 6위에 랭크된 것은 특별기획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조차 들게 한다.

대한민국 50대 문학 · 문학가

한편 문학 부문 순위선정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조선일보는 문학평론가 31인에게 의뢰해 건국 이후 가장 훌륭한 소설 · 시 · 소설가 · 시인 각 20개로 선정하여 작가-시인별로 평론가들이 추천한 횟 수를 단순 합산해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결과를 보면 특별히 빠진 부분은 없다. 하지만 김형수(소설가, 문학평론가)씨는 "심사위원 선정이 현재 출판사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자기 출판사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게 담연하지 않은가. 이건 불공평한 조사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소종민씨는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문인들에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솔직히 순위에 언급된 분들은 모두 1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제대로 된 평가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이번 특별기획도 조선일보의 오만함이 이제는 독재자를 국민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만드는 역사왜곡을 시도하려는 역사적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기자

문화 단신

용인, 총여 '여성문화제' 개최

용인배움터 총여학생회가 '여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오는 14일(월)부터 24일(목)까지 11일간 계속될 이번 행사의 주제는 '얼굴없는 자긍?'이다. '자긍'은 원래 '아들의 집'이란 뜻인데 이는 신체기관조차 남성중심사고에 묻혀버린 여성의 불평등성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이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여성들의 권리찾기'가 이번 문화제의 주제이다. 행사의 내용은 레즈비언영화 상영, 연극공연과 변영주, 서동진씨의 강연 등으로 다채롭다.

총여학생회장 배김선혜(서학 · 영어 3)양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시각으로 행사를 지켜봐 달라. 특히, 남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한다. 모든 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장소는 후복관 4층 소극장이다. 단, 16일(수)의 경우는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한다.

용인, 연극반 '연결', '맥베스' 공연

용인배움터 연극반 '연결'이 오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3일간 후복관 4층 소극장에서 '맥베스'를 공연한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 중 하나로 영국 중세시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키우다 결국 파멸에 이르는 한 장군의 이야기다. 기성 극단도 상연하기 어려운 작품이지만, 학생 입장에서 도전해볼 만 하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한다. 연출자 정명박(서학 · 독일어 3)군은 "학생들이 연극을 좀 더 가깝게 느껴서 연극보는 재미를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한다. 의상 · 소품 등을 직접 만들어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학내문화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시작 시간은 6시, 입장료는 2천원이다.

서울, 얼소리 정기연주회 열어

서울배움터 국악동아리 '얼소리'가 지난 4일(금) 대강당에서 열네번째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우리 음악의 접근과 감상' '우리 음악의 새로운 시도들' '민요를 통한 어우러짐'의 총 3부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는 단소독주인 '요천순일', 세악인 '천년만세', 뱃노래 · 진도아리랑 등의 민요가 연주되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서편제', '은행나무 침대', '축제'와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삽입곡 연주라는 새로운 시도도 선보여 참석한 학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회장 진성은(서양 · 영어2)양은 "국악은 느리고 지겹기만 한 것이라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공연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외대연극회 '등신과 머저리' 개최

서울배움터 외대 연극회는 오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3일간 스물네번째 워크샵 공연에서 '등신과 머저리'(원작: 김상열, 연출: 김덕현)를 대강당 무대에 올린다.

'등신과 머저리'는 감옥에서 만난 이종대와 문도석이라는 두 사내가 의형제를 맺고 출소 후 연쇄 살인 행각을 벌이는 내용이다. 모두 자신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뒤늦게 돈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숙명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작품이다.

연출을 맡은 김덕현(동양 · 태국어 93)군은 "학생들 앞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연습을 해 자신이 있다"며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가슴이 따뜻해지는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민전 첫째주 - 세계풍물음식전'

시민과 하나된 '청년마당'

'알록달록한 문양이 그려진 파피루스, 진기한 술병, 광산에서 나는 붉은 돌팽이 모양의 소금…'

지난 6일(일) 열렸던 '세계풍물음식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신기한 풍물들이다. 세계풍물전(풍물전)에는 각 나라(과)별 전시부스 마다 5~6명의 도우미가 나와 국가 소개와 전시물 설명을 해 주었다. 아랍어과가 전시한 박하나무 칫솔은 서양보다 600여년 정도 앞선데다, 미백 효과와 박테리아억제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그밖에 루마니아어과는 잡아당기면 뱀이 나오는 독재 장난감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일자로 배열된 풍물 전시부스를 구경하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세계음식전(음식전) 장소로 이어진다.

음식전 역시 각 나라(과)별 테이블을 마련해 음식을 조리 ·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음식을 사먹는 시민에게 조리법이나 그 나라의 음식이야기를 들려주는 학생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바나나를 튀겨 만든 마인어과의 '삐상고랭', 크레페와 비슷한 헝가리어과의 '밀러찐떠' 등은 생소한 이름만으로도 지나가는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다. 음식전을 준비한 김미진(서학 · 불어 1)양은 "새내기로 처음 맞이하는 세민전 풍물음식전에서 한 몫을 하게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또다른 행사로 동아리 '그림사랑'이 지나가는 시민 학생들에게 무료로 국기모양 · 물방울 모양 등을 얼굴에 그려주는 바디페인팅을 실시했다.

행사를 담당한 세민전준비위원회 문화기획부장 이삼미(동학 · 아프리카어 2)양은 "풍물 · 음식전이야말로 '도전과 화해의 청년마당'이라는 세민전 기조에 가장 부합하는 행사이다. 시민과 더불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한마당이 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한 것처럼 세계풍물음식전은 '박물관'식의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 '마당극'식의 함께하기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킨 성공적인 행사였다.

장서윤 기자

우리말 살려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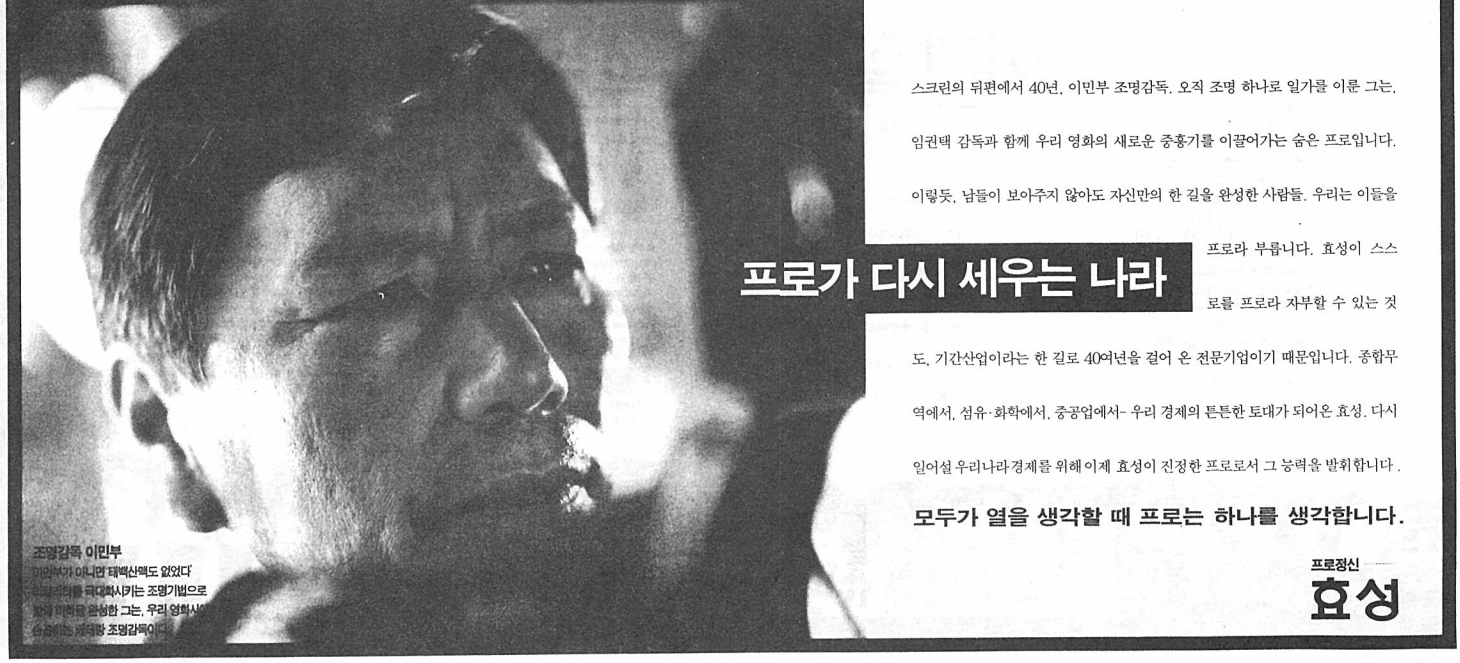
축구에 열광하는 서포터

요새 축구 경기를 보면 '서포터'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응원단과는 다른 말이라 합니다만 바깥말(외국어)을 들은말로 걸러내지않고 쓰면서 차별성을 가지려하는 어리석음을 한껏 볼 수 있습니다.

축구 개혁을 하는 일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 운동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회-정치-경제-문화 문제에서 등들려 운동경기로 몰아가려는 흐름과 더불어 '스포츠 만능주의'로 일으키는 '축구 부흥'입니다.

개혁을 해도 응원단이란 말을 살려두며 그안에서 하는 품이 더 낫지 않을까요? 말을 새로 지어야 하면 힘다지기, 힘몰이 같은 말을 써서 힘몰이꾼, 힘몰이 부대, 힘몰이 등이리 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새로 들이는 뜻을 담을 말은 바깥말을 들여오면 된다는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바깥말을 배우고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더 애를 쓰고 앞장설 일입니다.

최종규
〈서양 · 네덜란드어 2〉



임정민 용인 부총학생회장 옥중 인터뷰

"탈퇴서 쓰지 않은 건 저의 신념입니다"

"352번 임정민 면회오신 분 4번방입니다"

면회를 마친후 눈시울이 붉어져 나오는 다른 면회자들을 보며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임정민(경상·무역 4)군을 만나러 면회장으로 들어섰다. 얼굴이 좋아보인다는 질문에 "고생 안하고 잘 지낸다"라며 그는 환한 웃음으로 기자를 맞았고, 오히려 기자의 안부를 묻는 여유를 보였다.

임군은 6기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7월 30일 한심대 역에서 경찰에 연행, 현재 수원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다.

"책보고, 운동하고, 신문보면서 그냥 별 탈없이 지내요. 주로 19대 총학생회를 꾸리면서 있었던 일들을 많이 돌아보죠. 확실히 언제 나가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뭘 어떻게 해야 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감옥 생활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별 탈없이 지낸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그의 대답속에서 기약없는 감옥 생활의 답답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수배생활을 할 때도 학생들을 만나지 못해 미안했는데, 감옥에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개강 하고 한참 학생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갑갑하네요"라며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미안해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총련 개인탈퇴 문제에 대해 임군은 "한총련이라는 조직이 내 마음대로 탈퇴를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민주적인 선거로 한총련이 건설됐고 제가 부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인데, 학생들의 동의없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라며 대의원 개인탈퇴 문제는 정권의 비논리적인 한총련 죽이기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머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23년을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부모님의 간절한 바램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조사에서 "탈퇴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탈퇴 사실을 부인했다. '탈퇴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크게 웃으며 "물론 그냥 인정하고 나오면 편하죠. 감옥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나와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하지만 탈퇴서는 종이 한장의 의미가 아니예요. 탈퇴서를 쓴 사람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의원 활동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신의 신념을 꺽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부여해준 책임, 부담한 한총련 이적규정에 맞서 대의원이라는 직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단호했다.

또한 같이 입하던 총학생회 일꾼들의 걱정도 상당했다. "학생회 일꾼들이 많이 힘들꺼예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적으니까… 상황도 힘든 상황이구요. 제가 있었으면 그나마 힘든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많이 미안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일꾼들이 힘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라며 학내 재단문제와 한총련 이적규정의 문제로 상황이 힘들수록 대중의 토대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5분간의 면회의 끝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고 "면회가 끝났으니 들어가자"는 간수의 차가운 말이 이어졌다. 간수에게 팔이 잡힌 채 면회장을 나가면서도 그는 "한총련의 부당한 이적규정 문제는 반몰입적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가능한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요"라며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면회장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기자를 향해 큰 목소리로 "고생하세요"라는 말을 외쳤다.

그말은 수많은 양심수의 석방과 공간의 제약으로 그들이 하고 있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감옥밖 우리의 몫임을 일깨워 주는 듯 하다.

김경신 기자

김성은 기자

과거 부정한 정권에 저항하다 수배조치를 받은 학생운동관련 수배자 8명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수배해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농성단 천막모습.

'끝없는 터널, 이젠 밖으로'

수배해제 촉구 농성단, 조계사서 30일째 농성중

"수배생활은 참삶 없는 감옥이다. 더구나 기약 없는 수배생활은 무기징역 감옥생활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다." 조계사에서 만난 한 수배자의 이야기다.

김영삼 정권시절 학생운동 관련 수배자 8명은 '정치수배해제'를 주장하며 지난 8월 9일(일)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중이다. 여러 노동자 농성단의 천막속에서 '수배해제 농성 25일째'라는 팻말이 붙은 그들의 천막을 찾았을 때는 13일(일) 있을 문화제 준비로 분주한 상황이었다.

"이번 8.15 사면에서는 반인권적인 준법서약서를 강요해 결국 455명중 94명만이 석방되는데 그쳤고 수배해제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권이 부정부패와 독단에 저항하다 수배조치를 받은 양심수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학생운동 관련 최장기 수배자라는 훈장(?)을 달고있는 농성단 단장 오창규(전남대 심리학과 86, 93년 남총련 의장)군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김영삼 정권도 출범초기에 과거청산의 명목으로 3백여명의 정치 수배자들의 수배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은 오히려 예전 정권보다도 못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며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 65명의 수배해제를 주장했다.

학생운동과 관련한 수배해제를 위해서는 한총련의 이적규정이 철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이영수(5기 한총련 대의원, 서울대 농대 부회장 활동)군은 "학생들이 매년 뽑는 한총련 대의원 20000여명이 모두 수배자가 됩니다. 학생들이 범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선거를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라며 한총련의 이적성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어 유군은 "억지논리로 매년 엄청난 수의 수배자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는 현재의 수배해제 투쟁의 궁극적인 지향, 목표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김성숙(5기 한총련 언론사업 활동)양도 "우리가 형을 더 적게 받거나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로 모인 사람들이 아닌 만큼 완치을 놓지 않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농성장에서 만난 권오헌(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씨는 "수많은 양심수와 수배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철폐의사까지 밝혔던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범법자로 몰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농성단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진관스님도 "나의 임무는 공권력의 탄압에 맞서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정권에 의해 침범당하고 있는 인권과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투쟁으로서만 가능하다"며 농성단의 활동을 지지했다. 신도 김정재(상업, 40)씨는 "현대중기노동자 농성단이나 학생 농성단의 천막이 조계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현 정권의 잘못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의 실상을 꼬집었다.

끝이라곤 도저히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걷는 약몸,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항상 쫓겨다녀야 하는 기약없는 수배생활을 수배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비유한다. 이제는 그들이 터널의 끝에 다다를 수 있기를. 더 이상은 정치 수배자가 생기지 않기를 '국민의 정부'에 바래본다.

이지연기자

만 도기계 문막지부장 한상배씨를 만나

"공권력 발동, 형평성 잃었다"

정부, 회사 노사협약 파기 불구 노조에만 수배 · 구속 남발

정리해고 문제로 전면파업 18일째를 맞고 있던 만도기계 전국 7개 사업장에 지난 3일(목) 새벽 일제히 공권력이 투입되어 농성중이던 노동자 2400여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는 성명서를 발표, 진압 과정에서 자행된 경찰 폭력과 형평성을 잃은 공권력 발동 등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본보는 만도기계 7개 지부 가운데 하나인 문막지부 지부장 한상배(34)씨를 만나 파업 이유와 공권력 투입 상황 및 이에 대한 입장, 이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만도기계 파업 경위에 대해 알고 싶다

지난해 12월 3일 부도 이후 회사측은 회사 정상화 운운하며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등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협의에서 노사는 올 2월 23일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대가로 노조는 학자금, 주택융자금, 주·야간 간식지급, 종합건강검진 중단 등에 동의하고 통상임금의 30%를 반납하는 등 정리해고 없이 회사를 정상화하기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7월 23일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1,100여명이 넘는 수의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8월 17일부터는 전국 7개 사업장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이 노사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정리해고를 강행하려 했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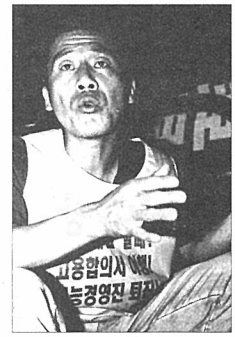
만도는 97년 3/4분기까지 900억원이 넘는 흑자를 냈던 회사였다. 사측은 한라중공업에 6천억원을 빌려주는 등 흑자기업이던 만도기계를 차입경영과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흑자부도에 이르게 했다. 이후 회사정상화를 위해 노조는 복지 부문 축소와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정도만을 받으며 일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경기가 나빠 자금 수요가 한들어지자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또한 정리해고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와해시켜 만도를 외국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 만도 진압 이후 하루만에 미국 로스차일드 사가 만도기계를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김대중 정권 취임 이후 사업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건 처음인데.

김대중 정권을 믿었다. 공권력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투입될 줄은 몰랐다.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식이 노사자율원칙에 어긋난다며 재벌과 언론이 벌였던 여론몰이와 이에 대한 김대중의 유감표시 이후 불똥이 만도에 튄 것이다. 정부가 중재를 하면 노사자율원칙에 어긋나고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것은 노사자율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정부의 공권력 발동이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지난 2월 노사간에 합의된 고용협약은 합법적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사협약을 파기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측에 대한 처벌은 커녕, 노동자들에게만 수배·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문제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 중재를 하면서 우리에겐 일절 그런 노력도 없이 공권력을 투입, 사측 편만 들어준 것이다.



김성은 기자

이후 계획은

현재 7개 공장의 사원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족대책위가 꾸려졌다. 노동자도 노동자지만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압과정에서의 폭력 만행을 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임신 9개월의 임산부를 밟고 진압했는가 하면, 애기를 업고 있는 가족에게 곤봉을 휘둘러 18개월된 아기 머리가 깨졌다. 현재 이들과 남아있는 노조간부, 플러나는 조합원 중심으로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직 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부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제 3차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 9월 14일(월)~ 9월 19일(토)

1998년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맑은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결을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나누며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길을 함께 걸어 가면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했고
우리 또한 사랑했던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을 잡을 수 없음에 슬픔을 느낍니다.
그 대신 열사들을 죽인 자들이
우리의 한 발을 밟고
한 하늘을 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목숨까지 바친
아름다운, 이들.
그 큰 정신과 염원을 가슴에 되새기며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설 때임을 다짐 합니다.

서울

제3차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 및 기념 주간 선포식
때 : 9월 14일(월)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열사 호칭 구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때 : 9월 14일(월) 오후 3시 30분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앞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한 묵요기도회
때 : 9월 17일(목) 오후 4시 장소 : 기독교회관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제
때 : 9월 18일(금) 오후 3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법당

제9회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때 : 9월 19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대문 독립공원

열사의 거리

조성만 거리 문화제
때 : 9월 14일(월) 오후 7시 장소 : 조성만 거리 (명동성당 앞)

전태일 거리에서 여는 고용보험 전면쟁송 대회
때 : 9월 16일(수) 오후 5시 장소 : 전태일거리 (동대문운동장 앞)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때 : 9월 14일 - 18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내

열사의 거리전
때 : 9월 14일 - 18일 장소 : 명지대학교 교문 앞

광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때 : 9월 17일(목) 7시 장소 : 광주 가톨릭센타

부산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때 : 9월 14일 -18일 오후12시-6시 장소: 부산역광장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때 : 9월 14일(월) 오전 8시 장소 : 부산역광장 그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양심수 전원석방의 날 때 : 9월 15일(화)
국가보안법철폐의 날 때 : 9월 16일(수)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의 날 때 : 9월 18일(금)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때 : 9월 18일(금)
장소: 부산대 Mr.Bud

주최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02-921-4092) 후원 : 한겨레, 월간 말,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한민전 영남위원회' 조작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이 '현대자동차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는 시점에 발표되었고,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는 점에 비추어 조작의혹이 짙다'라고 주장했다.

울산동구청장 김창현씨는 민선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월 23일 전격 구속됐다. 사진은 지방선거 다음날 민주노총 당선자들과 함께한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앞줄 왼쪽 세번째)

지난달 31일 '노동운동 탄압 응징조작 부산·울산 대책위원회' 회원 50여명은 태평로 조선일보사 앞에서 월간조선 9월호의 '김정일 피의자가 지역정권 장악'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월간조선을 불태웠다

한 민전 영남위원회' 사건 내막 해부

짜여진 '각본'…그러나 헛점투성이

울산 노동운동 탄압 위해 또 '이적 딱지'

지난 7월 22일 새벽, 부산·울산지역에서 사회단체 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불었다. 바로 이어 23일 울산 동구청장 김창현씨가 체포되었다.

긴급체포 사유는 '반제청년동맹'이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렇다면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중간발표문을 중심으로 수사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자.

1. 사건자체의 의혹

첫째, 우선 단체명에 대한 문제이다.

7월 22일 부산경찰청이 가족들에게 제시한 긴급체포통지서에는 1989년 3월 서울대에서 결성된 지하혁명조직 '반제청년동맹'이라 하였다. 그러나 2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한민전 영남위원회'로 나와있다. 그후 공식적 발표를 거치진 않았으나 구속자들에 대한 면회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조직명이 또 다시 '조선노동당 영남지역당' 또는 '조선노동당 남부지역당'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부산보안수사대는 조직명조차 명확하지 않은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조직원들을 긴급체포한 것이다.

둘째, 핵심조직원이 무혐의로 풀려났다.

3년동안 기획수사를 통해 진행된 사건이라고 자신만만하던(7월 22일 기자들에게 흘린 이야기)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그 핵심조직원으로 긴급체포했던 이창규(전 현총련 조직부장), 이의엽(전 부산 우리물산잠려운동본부 사무국장)씨를 24일 새벽 영장청구도 하지 않고 풀어주었다.

3년 동안의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된 반국가단체의 핵심조직원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하였는데 영장청구도 할 수 없었다면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닌가?

셋째, 합법적 활동이 반국가 활동으로 둔갑하였다.

7월 24일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주요활동사항을 하나 하나 반박해 보자.

① 결정적 시기 부산·경남 [illegible] 장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내 미군기지 현 [illegible] 제지표, 행정기관, 주민분포 등을 분 [illegible] 를 수집하고…

▷ 경제지표, 행정기관, 주민분포 등은 지방자치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또한 미군기지 현황등은 부산에서 대중적으로 벌어졌던 '하야투야 부대' 반환 투쟁에서 당연히 준비된 자료가 아닌가.

② 울산지역 12개 단체, 부산지역 7개 단체, 양산지역 1개단체 등 재야 합법, 반합법 조직에 조직원을 침투 및 외곽 지원단체로 활용하였고…

▷ 체포통지서에는 '희망의 젊은 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 조직원들 모두가 '희망의 젊은 연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구속자들 중 일부는 '희망의 젊은 연대' 회원이 아니며, 이적활동의 내용도 없다.

더욱이 부산경찰청은 보도자료에서 표기했던 단체명을 환급히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에 대한 명단발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참고: '희망의 젊은 연대'는 참립시 심완구 시장과 김성렬 시의장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건강한 30대 청년들이 모인 이 단체가 향후 지방자치에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축하해 주었던 모임임.

③ 유사시를 대비하여 친목단체 20여개를 조직화하고, 회원단체 500여명을 동조지원세력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 친목단체 20여개에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지역사랑 등산회, 조기축구회, 주부문화학교 등 대중단체들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자신들이 조직원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가입 또는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은 모두 외곽지원단체이거나 유사시 지원세력으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97. 4월 경부터 현재까지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모금활동을 하여 울산지역에서 3억 5천만원, 부산에서 1억8천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을 모금 북한동포돕기 운동부서에 송금하였고…

▷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모금활동을 하였다면, 5억3천만원이란 엄청난 액수를 어떻게 모금할 수 있었겠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금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반국가단체의 수뇌(국가보안법상 북한은 가장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임)를 보위하는 투쟁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담당한 전국연합과 북한동포돕기 운동본부는 반국가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중간책이 된다.

동포에에 대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공안세력은 김정일 보위투쟁으로 보고 있었음을 드러낸 예이다.

⑤ 98. 4 민주노총위원장 선거시에는 조직에서 정모씨를 추대, 전국순회선거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96. 12 - 97. 2월까지 노동악법개정, 노동자 생존권 확보투쟁 집회 시위시 수회에 걸쳐 그 활동을 지도하였고,

97. 4 - 8월경까지 감전동 국민CAP(택시회사) 분규시 부산노동자회 간부를 파견, 배후조종한바 있고,

▷ 민주노총의 활동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세력에 의해서 민주노총이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몰아세우며,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순세력 등의 배후조종 때문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구속자들중 절반이 노동운동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볼 때, 이들이 이번사건을 통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예가 될 것이다.

2.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의 배경은 무엇일까?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배경은 부산경찰청이 가장 잘 알고 있겠으나 나름대로 수사기록 등을 통하여 추측해 보자.

7월 22일 금속연맹, 23일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울산지역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었던 시점이다.

22일 오전 부산 경찰청 관계자가 말한 '이들이 노동운동 과정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이적단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이번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22일 이전에 검거하지 않았을까? 더욱이 3년동안 '기획수사 했다는데'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7월 21일이라는 시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21일은 전국 7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루어졌던 날이다. 사건에 대한 파장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정리해고 반대' 투쟁의 파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 바로 보궐선거의 결과에 온 관심이 쏠려있는 22일 새벽이 가장 적절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리해고 반대' 투쟁의 파장을 줄이기 위한 영남지역 또는 부산·울산 지역에 한정된 사건인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발표내용을 보면 과거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약칭 구학련), 고려대 반미청년회, 반제청년동맹사건 관련 공안전력자 등이 주축이 되어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으로 88. 4. 서울에서 전국 각지 '반제청년동맹 결성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92. 3. 16 영남위원회로 재편하고 부산·경남지역 핵심인자 20여명으로 혁명지도부를 구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월간조선 9월호에 우종창기자와 수사실무 책임자의 인터뷰기사를 보면 "다른 지역에도 이들과 연계된 당이 있다는 것입니까?"란 질문에 "호남과 경인지역에도 이런 조직이 존재하리라 봅니다"고 하고 있다.

즉 이번사건이 단순히 영남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민족민주운동진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사건이 일부 보수기득권세력과 공안세력이 반격을 위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각이 있다.

월간조선을 보면 수사실무책임자가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들과 충분히 점검'했음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1997년 4월 안기부도 알게되었고, 98년 6월 OK사인을 냈다(시기는 9월 이후로 미룰 것을 요청)고 하고 있다.

즉 이번사건은 일부 공안세력내 기득권층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 김대중정권의 안기부, 검찰, 경찰 모두 함께 준비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3. 정리하며

위에서 필자는 이번 사건의 배경과 조작의혹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건의 개별적 사안만을 두고본다면 조직의 존재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사건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의 존재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이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만 채워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수사발표내용에서 주요활동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그 사람의 활동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공안당국의 시각에 의해 그어지는 잣대에 의해서)에 따라 합법적인 활동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규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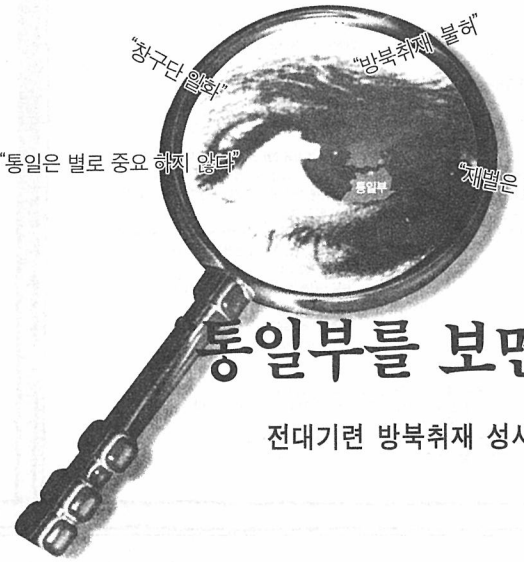
운동의 합법영역이 강조되고, 진보진영의 활동들도 합법적 활동을 중요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기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8월 28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4백20명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이 2백68명(66.7%)이라는 사실-민가협 집계-만으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즉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생각(사상)의 자유마저 박탈되는 것이다.

박영철

〈노동운동탄압·응공조작 분쇄를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방북취재 불허 규탄 공동광고



"통일부를 보면 통일이 안보여요"

전대기련 방북취재 성사로 통일, 이젠 보이게 합시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방북취재 불허에 대한 전대기련 규탄 성명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2천 대학신문기자들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갈라진 한민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방북취재 사업을 성심성의껏 준비해 왔습니다. 방북취재는 어떠한 사회·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북의 대학생 및 주민들의 생활을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대기련의 방북취재 사업은 정부와 통일부의 무성의하고 반통일적인 대응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전대기련은 3차례에 걸친 접수시도로 지난 7월 16일 방북 접수를 성사시켰으나 정부와 통일부에서는 단 한마디의 자세한 설명도 없이 한 장의 불허 통지서만을 보내왔습니다.

통지서에는 '최근 접수된 사건으로 남북간의 경색과 통일대축전 등으로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궁색한 변명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통일부의 이러한 불허 판정은 다시금 순수한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의지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구시대적 행태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언론매체를 통해 '각 대학 학생회 및 대학생들이 북한 대학생과의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승인해 줄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러대학의 총장, 교수들과 각 사회단체분들의 추천서와 지지성명서까지 받았던 방북취재를 불허한 것은 통일부의 반통일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대기련 2천 기자들은 이러한 정부와 통일부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방북취재가 성사될 때까지 온힘을 다해 맞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북취재 성사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신 여러대학 총장님들과 교수님들, 각 사회단체어르신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대기련 대학신문기자들은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전대기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통일부는 전대기련의 방북취재 사업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구시대적 발상인 창구단일화 논리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의 방북을 허가 해야 합니다.
-남북간의 화해를 가로막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취임 당시 공약사항이던 남북합의서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재단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② 학생이 선두에 나서야 한다

공동연대투쟁이 절대적 해법

대학운위 · 단대 학자위 건설 · 외대발전장기계획 수립 등 필요

재단투쟁과정중 과일꾼들에 의해 이후 상황을 듣기보다는 유인물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진은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다.

지난 학기 재단비리를 척결하고
진정한 외대발전을 이룩하고자
학원 3주체(교수, 학생, 직원)는 하나로 뭉쳐
'부패비리 재단이사진 승인취소'
'박승준 전 재단전무이사 사법처리' 등
학내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재단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역시 학생들이었다.
4.19, 6월항쟁 등의 역사는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의지와 신념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것을 해결하기위해
언제나 학생들이 가장 선두에서
투쟁으로 나서고 있음을 잘 증명하고 있다.
이렇듯 언제, 어느 곳에서나
모순이 자리잡고 있으면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학생들의 의지는
우리학교 재단투쟁에서도 잘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외대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세력은
역시 학생밖 수 밖에 없다.
재단투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서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본보는 이후 외대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고찰해봄으로서,
외대발전의 진정한 민주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첫번째 양배움터 공동연대투쟁으로 재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배움터 총학생회의 지난 학기 재단투쟁에 있어 가장 큰 오류점 중 하나는 공동연대투쟁을 하지못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투쟁 참여와 의지에도 양배움터 공동연대투쟁이 성사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재단투쟁이 어느 한 배움터만의 투쟁이 아닌 서로 함께 해야하는 투쟁임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학기 재단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동연대투쟁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지난 3월 30일 이루어진 이숙경 전 재단이사장과 당시 조규철 총장대행,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간의 합의에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가 배제된채 진행되어 선언문을 작성한 일이다.

뒤늦게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가 배제된 채 진행된 합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유감을 표명한 바있다.

이를 계기로 양배움터 총학생회는 공동연대투쟁을 위한 노력보다는 이전까지 투쟁했던 방식대로 배움터별 투쟁을 벌였고 이로 인한 한계점들이 드러났다.

현재 양배움터의 3.30 선언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여전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30 선언을 기본틀로 해서 이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서울배움터
>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가 배제된채 이루어진 합의이므로 무효일 수 밖에 없다"
> -용인배움터

이에대해 용인배움터 학원자주화투쟁특별위원회(학자특위) 위원장 인문대 학생회장 정승환(인문·사학 4)군은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가 합의 당시 없었으므로 우리의 입장은 '3.30 선언은 무효'이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배움터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외발추) 위원장 제성훈(서양·노어 4)군은 "3.30 선언은 지난 학기 재단투쟁과정 중 이숙경 전 이사장과 조규철 현 총장이 유일하게 서명을 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물이다"며 "이 선언문을 기본틀로 하고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의 입장을 추가하여 수정·보완하는 것이 이후 외대발전 방향을 잡는데 더 좋은 방향일 것이다"고 밝혀 이후 양배움터간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배움터간 대화창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양배움터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다. 재단비리 척결이라는 하나의 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배움터 학생회에 있어서는 이전부터 진행이 됐어야 할 문제다.

더욱이 양배움터 총학생회간 의사소통 문제는 굳이 재단투쟁 문제가 아니라하더라도 학내 복지사안,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세민전) 등 함께 고민하고 진행할 행사, 투쟁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안들이 모색돼야할 것이다.

또 지금시기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대발전 장기계획 마련에 있어서도 양배움터의 의사를 조절하고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상설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상설적 논의기구가 건설이 된다면 지난학기 '자곡동 이전이 옳은가, 왕산 이전이 옳은가'식의 소모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두번째 대학운영위 건설 촉구

학내에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교수, 학생, 직원이 모두 학교의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민주적 운영기구)로 '대학운영위' 건설은 필수적이다. (본보에서는 대학운영위 또는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다룬바 있다. 718호 참조) 민주적 의사결정기구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법에 의해 모든 결정이 다시 재단이사회로 집중되기 때문에 재단 이사진의 전횡이 발생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이런 전횡을 안타깝게도 이사진의 힘에 의해 이를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민주적 의사결정기구가 없이는 지속적인 외대발전이란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이에 양배움터 총학생회 역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속에서 양배움터 총학생회가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지난 718호 10면 기획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대학 중 가장 먼저 민주적 의사 결정기구를 건설한 조선대학교의 '대학자치협의회(대자협)' 정관을 기본틀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본보 718호 표1 참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민주적 의사 결정기구를 계속 유지하고 결정된 사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특히 조선대의 경우 가장 먼저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건설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한 정관을 확실히 제정해야하며 또한 이 기구의 창동에 대해 학생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지않으면 안된다.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인 '대학운영위'가 건설되면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리고 총장 선임, 재단 이사진 추천 등의 활동으로 학내 복지사안부터 넓게는 외대발전 장기발전 계획까지 현실적인 대안마련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이 양배움터 학생회간의 상설적 협의체를 통해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세번째 단대·과 학자위 건설 외대발전 장기계획 수립

지난학기 재단투쟁을 벌이는데 있어 가장 중심인 학생들과 학생회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학생과 학생회를 엮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재단투쟁 상황에 대해 유인물을 통해서만 알게되어 정확한 상황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는 용인배움터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던 부분이다.

지난 학기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에 비해 일꾼 수도 적고, 재단투쟁 상황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의(중운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는 단순히 학생회 일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간에서 그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계가 없었던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각 단대·과 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가 건설이 되지 않아 이를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라도 각 단대·과 학자추와 같은 상설적 의사소통기구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크게는 외대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작은 의견까지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노력해야할 부분이 외대발전 장기계획 수립을 시급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서울배움터에서는 외발추가, 용인배움터에서는 학자특위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에 대한 연구작업을 벌임과 동시에 양배움터간 의사 수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외대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명재권 기자

미사일이길 바라나?

O…얼마전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 일, 남한 정권은 전쟁 위협이라느니 대응을 하겠다느니 떠들석. 그러나 며칠후 북한이 '광건 50돌을 맞아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이라고 밝혀 크로니클자 긴장국면이 완화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미, 일, 남한당국 그리고 언론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아마 분명히 미사일을 쏘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신문을 보던 크로니클자 한숨을 내쉬며 한마디. "북한 미사일의혹보다 미국과 정권, 언론이 조성하는 분위기가 더 살벌하구만…" 〈신〉

O… 스님 크로니클자. 산에서 몇 년간 수행을 마치고 조계사로 불공을 드리러 갔는데… 분명 간판은 조계사인데 부처가 있는 대웅전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유인즉 노동자들과 정치수배해제를 주장하는 한총련 학생들의 농성천막 때문이었다는데… 결국 천막속에서 헤매던 크로니클자 한마디 "못삼겠다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리 많은 것을 보니 내가 몇 년간 산에 들어간 사이 나라가 망해버렸나 보구나. 나무아미타불…" 〈겸〉

O…우리나라가 IMF 식민지 된 것은 일제해방후에도 친일 매국놈들이 정계 곳곳에서 나라를 주물럭거린 것 때문이고, 우리학교 사학비리 재발 가능성은 학자투쟁 승리 후에도 친박승준 교직원들이 학교 곳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지. 〈승〉

O…98년 대한민국 돌아가는 얘기 한번 들어보소. 월급깎고 복지악속도 다 깨가며 정리해고만은 하지 않겠다고 고용협약 맺었던 회사측과 1000원에도 발발떠는 마누라에 새까만 눈동자 굴려대는 자식새끼 굶겨 죽이지 않으려고 바보인양 들어주던 노동자가 있었소. 그래놓고는 일방적으로 협약 파기한 회사측과 굶어죽을 수는 없기에 기계를 멈춘 노동자가 있소. 누가 잘못이오? 가족이 함께 있는 농성장에 공권력을 보내 임산부의 배를 밟고 4살짜리 내 자식 머리를 곤봉으로 쳐 깨뜨린 정권의 논리대로 정말 우리가 잘못이오? -만도기계 농성장에서 〈희〉

강(强) ≠ 선(善)

비둘기칠판

왕산골

□ 알립니다

· "언어인의 나눔 행사입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신나는 한마당
때: 27(일) 일찍 오세요
〈언어학과 학생회〉

· 원주 학우회 합니다.
연락처: 012-382-8945
꼭 연락! 안오면 봉천내로 보내버림.

□ 축하합니다

· 10일(목) 인문대 사무국장 김재훈 오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대 선전 꼬마가〉

□ 모집합니다

· 교지에서 43기 수습위원을 모집합니다.
98학번 새내기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합니다.
문의: 학생회관 3층 (4167)
〈외대교지〉

이문벌

□ 알립니다

·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영어교육과 영어연극회 '우리가치'의 5회 정기공연이 열립니다.
공연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장소는 대학원 건물 소강당입니다.
많이 와서 관람해 주세요.
때: 24일(목)과 25일(금)에는 6시 30분
26일(토)에는 4시.
〈우리가치〉

□ 모집합니다

· 아직도 동아리를 찾고 계십니까.
AIESEC에서는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국제교류전문학생단체(AIESEC)
정기모임은 매주 목요일 늦은 6시 학생회관 4층
〈AIESEC〉

· 봉사동아리 실천사랑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저희는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사회복지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는 활동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오류동에 위치한 연세사회복지원에서 원아학습지도.
모집기간 : 23일(수)까지
연락처 : 학생회관 4층 961-4569
〈실천사랑〉

· 13대 영어과에서는 10월에 있을 영어과 예술제를 준비할 98새내기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문의: 012-1149-4559
〈영어과〉

□ 찾습니다

· 검정색 지갑을 9월 5일 13시경 본관 앞 공중전화박스에서 분실. 지갑안에는 일본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일본은행 현금카드, 후배의 학생증(일어과 95)등이 들어 있습니다.
지갑 속의 내용물은 현금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며, 일본거주에 있어서 제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습득하신분은 연락처로 연락주시거나 본관 수위실에 맡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964-9318
015-309-9639 012-1115-3302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각과 2학기 정총 열리기 시작

'학생회와 학생 소통의 장으로'

서울 서울배움터에서 2학기 과 정기총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는 오늘(7일) 독일어과가 오후 5시 대학원건물 104호 소강당에서, 불어과가 9일(수) 5시 사회과학관 206호에서, 정외과가 이튿날인 10일(목) 5시 대학원건물 104호에서 정총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교과

영교과는 지난 4일(금) '개강맞이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개강잔치 및 정총을 겸해 진행했다. 학생회장 강승수(3)군은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정총이 아닌 학생회와 학생들의 만남을 통해 간격을 좁혀 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어과

독일어과 정총은 과 학생회장인 김하영군의 제작문제와 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특별안건으로 지난 26일(수)군복무 중 사망한 고 손철호군의 의문사의혹문제가 상정됐다. 독일어과 학생회장 김하영(3, 제적)군은 "과회장의 제적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학생들과 같이 얘기하며 풀어야 할 학생회의 문제"라며 학생들과 논의속에서 제적문제를 책임지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불어과

불어과는 10월 9일 열릴 가요제 등 2학기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것 외에도 회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총성사 정족수를 현재보다 상향조정하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 학생회장 심영철(2)군은 "정총을 보다 심도깊게 논의하는 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중 하나"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외과

정외과는 인준안건으로 선거시행세칙 개정 등을 상정하고 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은 △후보등록 추천인원 30명(학년당 10명)을 1명으로 변경 △선거전 좌담회 및 토론회 2~3회 개최 등 항목이 그 중심내용이다. 학생회장 김기홍(3)군은 '일반의지와 주권은 심천하는 의지 속에서 지켜질 수 있다. 인민은 인민들을 위한 집회의 참석으로 권리와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루소의 말을 인용,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용인 용인배움터는 지난 3일(목)부터 불어과, 사학과 등이 2학기 정총을 치렀고 이번주에는 영어과(7일), 수학과(7일), 아랍어과(8일), 산업공학과(8일), 마인어과(9일), 중국어과(11일) 등이 개최할 예정이다.

영어과

오늘(7일) 오후 5시 30분 교양관 201호에서 △학회지원금 인상관련 회칙개정투표 △1학년 학생회장 교체선출 찬반투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수학과

오늘(7일) 자연대 건물 112호에서 △신임이사진에 대한 입장정리 및 토론 △하내복지확충 대안마련을 주요안건으로, 기타안건으로 11월 중 축제와 자대학술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대학단신

사이버 대학 이번 학기 시험운영

오늘(7일)부터 내일(8일) 이틀동안 양 배움터 교무과에서는 전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대학 수강신청을 받는다. 이번 학기부터 시험적으로 운영, 오는 14일(월) 개강하는 사이버대학에는 현재 6개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수업은 각 교수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이와 관련 기조처 관계자는 "시험운영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설교과목은 서울에 대중문화론(3학년 전공, 조종혁 교수), 생산관리(2학년 전공, 이명호 교수)등이 있으며 용인에 과학사(1학년 교양, 박성래 교수), 양배움터 공통적으로 이태리문화개론(1학년 전공, 김시홍교수), 현대인의 정보관리(1학년 교양, 이영환 교수)등이 있다.

육성수·전태현 교수 타교 박사학위 취득해

사범대 체육학 담당인 육성수 교수와 마인어과 전태현교수가 지난달 각각 타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육교수는 지난 25일(화) 성균관대에서 이학박사를, 전교수는 그보다 앞선 7일(금)말레이시아에 있는 국립 말라야대학교(University of Malaya)에서 언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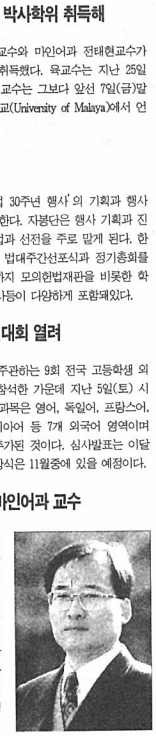
법대 자원봉사단 모집중

서울배움터 법대 학생회는 '외법 30주년 행사'의 기획과 행사진행을 맡을 자원봉사단으로 모집한다. 자봉단은 행사 기획과 진행 외에도 동문선배 편지 연락작업과 선전을 주로 맡게 된다. 한편 외법 30주년 행사는 16일(수) 법대주간선포식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17일(목)부터 24일(금)까지 모의헌법재판을 비롯한 학술제, 26일(토) 모교방문의 날 행사등이 다양하게 포함돼있다.

전국 고교외국어 학력경시대회 열려

교육부가 주최하고 우리학교가 주관하는 9회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학력경시대회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토) 시청각교육원건물에서 열렸다. 경시과목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 영역이며 이 중 러시아어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심사발표는 이달 24일(목) 이전에 할 계획이며 시상식은 11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본보 주간교수에 고영훈 마인어과 교수



지난 1일(화)자로 단행한 교원인사발령조치에 의해 고영훈(마인어과)교수가 본보 편집인 겸 주간으로 임명됐다.

고 교수는 81년 우리학교 마인어과를 졸업하고, 국립 말라야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94년 마인어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현재 고 교수는 한국 말레이·인도네시아 학회 총무이사직을 맡고 있다.

우리학교학생 '전국모의유엔회의' 3위 입상

지난 7월 9일(목)부터 11일(토) 38개 대학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대학교에서 열린 4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우리학교 안장혁(사회·정외 3)군과 한유경(사회·신방 3)양이 3위에 입상했다. 권원순교수가 지도를 맡고 쿠바를 대표한 우리학교학생들이 입상한 부문은 '유엔의 재정위기 해소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 3위원회였고 수상명은 '우수 협상능력상'이었다.

고 손철호군 영결식

지난 3일(목) 서울배움터 도서관 앞에서는 8월 26일(수) 군복무중 수류탄 폭파사고로 숨진 손철호(서양·독일어 94)군의 영결식이 있었다. 영결식은 송군의 유가족과 과 교수·선후배 및 ROTC 동기·선후배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송군의 아버지는 군에서 자살로 사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전후 상황을 봐서 분명 의문사임에 틀림없다며, 학생들에게 진상규명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독일어과는 손철호군의 의문사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승희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교원보임 : 학보편집인 겸 주간(고영훈 마인어과 교수), 외대발전캠페인본부장(강석영 교수), 서양어대 영어과 과장(김명옥 교수), 서양불어과 과장(박시현 교수), 서양 서반아어과 과장(정경원 교수), 서양 이태리어과 과장(한형곤 교수), 서양 포르투칼어과 과장(조이환 교수), 동양어대 중국어과 과장(맹주여 교수), 동양 일본어과 과장(최재철 교수), 동양 태국어과 과장(김영애 교수), 동양 인도어과 과장(서행정 교수), 상경대 무역학과 과장(이광은 교수), 상경대 경제학과 과장(노택선 교수), 상경대 경영학과 과장(정윤 교수), 사범대 영교과 과장(이성하 교수), 사범대 불교과 과장(오시근 교수), 사범대 한교과 과장(김형필 교수), 인문대 언어학과 과장(유재원 교수), 서양학대 영어과 과장(손동호 교수), 서학 독일어과 과장(송운엽 교수), 서학 서반아어과 과장(윤석영 교수), 서학 포르투칼어과 과장(최영수 교수), 서학 이태리어과 과장(이성훈 교수), 서학 체코어과 교수(권재일 교수), 서학 항가리어과 과장(이상협 교수), 동학 인도어과 과장(이정호 교수),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과장(이영환 교수), 자대 물리학과 과장(이보화 교수), 공대 제어계측공학과 과장(윤일동 교수), 공대 정보통신공학과 과장(김명진 교수)

교원 신규임용 : 서학 영어과 전임강사(Conway Sheelagh), 서학 서반아어과 전임강사(Castro Diaz Elena Elvira), 서학 서반아어과 전임강사(Pacheco May Juan Antonio), 서양 서반아어과 전임강사(Rubinat Paellada Ramon), 서양 스칸디나비아어과 전임강사(Karlsson Anders Paul Sture), 서학 유고어과 교수(Coric Bozo), 서학 체코어과 조교수(Bischofova Jana), 서학 폴란드어과 교수(Pyzik Jozef Karol), 서학 폴란드어과 부교수(Cholopica Wiegos Maria Irena), 서학 루마니아어과 전임강사(Groza Liviu), 동학 마인어과 전임강사(Mat Zaid Bin Hussein), 사범대 불교과 전임강사(Gourdien Franck), 국제지역대학원 교수(Djoko Suryo), 국제지역대학원 부교수(Vorontsov Alexandre),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Cui Jianhua 崔建華), 국제지역대학원 전임강사(Seliger Bernhard Johannes)

명예교수 : 서양어대 영어과 양인석교수, 동양학대 태국어과 이교충 교수

직원 부처장 승진 : 이응희 서울 학생처 부처장 겸 학생과장, 용인 총무처 부처장 겸 전설부장

직원 부처장 및 과장 보직이동(발령 전-발령 후) : 유원유(법인기획실 과견-대학원 사무1과장), 이강오(용인총무부처장-연구협력부처장), 한철수(대학원사무1과 사무과장-외국어연수평가원 사무과장), 이진섭(법인사무처파견-서울 총무과장 겸 후생과장), 윤순복(외국어연수원 교학과-법인사무처 사무과장 겸 사업관리과장), 김진수(서울 학생과장-용인 총무처 관리과장), 이수광(출판부 출판과장-서울 교무처 학적과장), 윤병훈(용인 교무처 교무과장-출판부 출판과장), 김경수(서울 교무처 학적과장-용인 교무처 교무과장), 예영기(법인사무처 대원빌딩 관리과장-서울 비상계획관실 비상계획과장), 서은택(용인 총무처 총무과장-서울 시청각교육과장), 강영준(서울 총무처 후생과장-용인 총무처 총무과장), 김현호(비서실장-대학원 사무3과 사무과장)

직원 근무처이동 : 오춘열(서울 총무처-외대발전캠페인본부 겸 재단법인 한국외대 발전지원재단 사무국 사업담당) 외 47명

벌점직 임용 : 김종익(재무처장 99. 8. 31까지 기간연장), 윤중섭(법인사무처 기획실장 99. 8. 31까지)

대기발령 : 이광구(6월 1일자 직위해제), 장경태(전 대학원 사무3과 사무과장), 정근서(전 모현학사 운영과장), 이정규(7월 15일자 직위부여), 강일수(전 용인 총무처 생협담당 사무주임), 박선영(전 서울 도서관 열람과), 이강희(전 공대 교학과), 이재선(전 용인 총무과), 남우영(전 법·상·사회대 교학과), 노병학(전 서울 총무처 수송부), 신인규(전 서울 총무처 수송부), 황신애(전 비서실)

출소한 김홍철 97년도 용인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이사람

"감옥에서 세상살이를 공부했습니다"

'한총련 출범식 이후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 나 또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일인이 되면서 어둬생활을 하고 있다. ...밤이면 잠자리를 구하기 위해 걱정하고 하루 한끼씩 먹으면서 노숙...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학생회 일꾼들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과 보고 싶은 학우들과 대중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글은 97년 부총학생회장 김홍철(자연·물리 4, 휴학)군이 수배생활 중 당시 외대학보(695호)에 게재한 수기이다.

김군은 서울 노량진에서 △이적단체(한총련)구성 및 사법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 등으로 연행되어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8월28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1년6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되었다.

출소 후 김군은 대전 고향집에서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었다. 김군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효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름이면 학생들의 얼굴은 농활, MT등으로 검게 그을리지만 김군의 새하얀 얼굴은 0.85평 안의 고립된 수감생활을 짐작케 했다.

"원론적인 경제학이 아닌 세상살이와 밀접한 쉬운 경제학을 주로 공부하며 지냈다. 수배중 잠시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그 일도 IMF 덕분에 정리해고를 당했다"라며 씁쓸한 웃음을 보였다.

김군의 '한총련 탈퇴'에 대해 조심스레 묻자 "백태웅씨도 준법서약서를 쓸 때에는 무척 부끄러웠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이 김영삼정권과 같은 길을 가게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비록 한총련 탈퇴가 원칙적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부분이기는 하나 또한 백태웅씨와 비슷한 생각에서 탈퇴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한후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며, "90년대 중반이후 학생운동도 위치, 역사,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겠다. 또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구호의 유연화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표명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답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과 보내지 못한 여름이 못내 아쉬운지 김군은 "드높은 가을에는 학우들 속에서 깊은 결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혜나 기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안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외대인을 위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에 와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도움
- 개인상담 : 정서문제, 대인관계, 진로문제, 이성문제, 성적문제, 대학생활문제 등을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 집단상담 :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자기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상담 : 유학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심리검사 : 자기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성격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자아개념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 해석해 드립니다.
- 자료실이용 : 취업, 대학원 진학, 유학 등 진로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국 대사관을 통하여 입수된 유학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소 : 학생회관 2층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전 10:00~오후 5:00 (점심시간 12~1시 사이는 제외)
▶ 상담이나 심리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적성검사 실시안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9월 중 적성검사(무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 시 : 9월 10일(목) 오후2시
9월 18일(금) 오후2시
장 소 : 학생생활상담연구소(학생회관 2층)
주의사항 : 적성검사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미리 신청하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9.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취업상담을 위한 취업진로카드 작성 및 제출

학생취업정보센터에서는 효율적인 취업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하여 졸업예정(졸업)자의 취업진로카드를 다음과 같이 교부 및 접수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제출대상자
'98학년도 전기('99년 2월) 졸업 예정자
* 기졸업자 중 미취업자도 제출가능함.

2. 취업진로카드 교부 및 접수처 : 학생취업정보센터
- 서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구내전화 4436)
- 용인캠퍼스 : 학생회관 1층 (구내전화 4040)

3. 준비물 : 증명사진(3cm×4cm) 1매.

1998. 9.

학생취업정보센터소장

추가등록기간안내

1998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추가등록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등록기간 : 1998년 9월 7일(월)부터 9월 14일(월)까지

2. 등록장소 : 제일은행 본점 및 지점
국민은행 본점 및 지점

3.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통지서 참조

4. 장학금 수혜 학생은 장학증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할 것.
(등록금 납부 통지서에 장학금이 표시된 학생은 제외
- 차액만 납부)

5.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할 것.
(본 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등록기간은 없으며 등록기간 외에는 등록금을 수납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경리과 또는 용인 캠퍼스 총무과에 문의바람. (구내전화 4043, 4044)

1998. 9.

재무처장

사이버대학 수강신청 안내

1998학년도 제2학기 사이버대학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1. 사이버대학 개강일 : '98년 9월 14일(월)

2. 사이버대학 수강신청 일시 및 장소
1) 일시 : '98년 9월 7일(월) ~ 9월 8일(화) 09:00 - 15:00
2) 장소 : 서울캠퍼스 학생은 서울 교무처 교무과
용인캠퍼스 학생은 용인 교무처 교무과
3) 준비물 :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원(기수강신청자), 수강신청 OMR카드(신규신청자)
※ 사이버대학 강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규학기의 강의를 변경할 수 있음
※ 사이버대학 수강신청서 서식은 양 캠퍼스 교무처에 비치되어 있음

3. 사이버대학 개설 교과목

교과구분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개설캠퍼스	담당교수	학점	시간	비고
전공	이태리문화개론(2)	1885	서울	김시홍	2	2	[illegible]
		4856	용인				[illegible]
전공	대중문화론	3067	서울	조종혁	3	3	[illegible]
전공	생산관리	3464	서울	이명호	3	3	[illegible]
교양	과학사A	9029	용인	박성래	2	2	[illegible]
	과학사B	9092					[illegible]
교양	현대인의정보관리A	7483	서울	이영환	2	2	[illegible]
	현대인의정보관리B	7538					[illegible]
	현대인의정보관리A	8978	용인				[illegible]
	현대인의정보관리B	9035					[illegible]

※ 사이버대학 개선 교과목은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 및 학점이 동일함.

4. 유의사항
1) 사이버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함.
2) 사이버대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정규학기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음.
3) 기타 수강신청에 관한 문의는 서울 교무처 교무과 (구내전화 : 4021)

1998. 9.

교무처장

방 송비평 -SBS TV사극 '홍길동'

이름만 홍길동 아닌가요?

'시청률' 때문에 원작정신 못살린 방송의 무책임성

강준만 교수가 쓴 '김대중 죽이기'를 떠올려 본다. 그리고 주말 낮 때에 다시 방송(재방송)하는 서울방송 '홍길동'을 떠올린다. 피식 웃음이 나오다가도 북받치는 심남에 주먹이 부르르 떨기도 한다.

강준만교수가 '김대중 죽이기'를 세상에 펴내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패권주의를 다시보게 되었다. '…죽이기'가 호름말(유행말)까지 되며 크게 우리 생각을 뒤흔들었다고 할까? 이 책은 우리 사회와 언론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놓고 벌인 온갖 협작과 덧칠하기(윤색)를 낱낱이 밝혀내고 이를 비판했다. 그리하여 또 다른 김대중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자 했으며 뒤틀린 이 나라 정치판을 제대로 보라는 깨우침을 던져주었다.

서울방송은 '홍길동'을 내보내기 앞서부터 문제가 되었다. 전남 장수군에서는 한 해 앞서부터 홍길동을 문구화하는(캐릭터사업) 일을 벌여 왔다. 뚜렷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는 장수군이 홍길동이 난 곳이라는 설이 드세다. 그리하여 그려낸 홍길동 그림을 보면 아기자기하며 귀엽기도 하다. 그런데 서울방송이 그려내고 문구화하는 홍길동을 보니 이는 일본무사 내가 물씬 났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일본 무사 홍길동'을 만드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이미 오랜 겪음과 연구로 문구화하는 일을 가로채려는 음직임까지 보이다 얼마 앞서 서울방송이 철퇴를 맞기까지 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방송물이다. '홍길동'을 방송물로 내보낼 때는 다른 사극과 마찬가지로 사실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에 맞게 새로 덧칠을 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서울방송 '홍길동'은 무엇을 사실로 하고 무엇으로 덧칠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름과 활빈당 존재, 홍길동 무예 솜씨는 그나마 사실을 살리는 듯하지만 이야기 흐름과 내용은 완전히 뒤바꾼 느낌이다. 활빈당에 홍길동이 찾아가 도적떼를 혼내주고 지금까지 벌여온 도적질이 아닌 민중을 괴롭히는 관복입고 중옷입은 도적을 혼내주어 재물을 도로 민중에게 돌려주는 활빈당임에도 '만세삼창'하며 활빈당을 열고 그 '만세 삼창'하는 판에 주정떠는 이가 나오는가 한편, 무슨 정당 전당대회하는 듯한 분위기. 활빈당에서는 사람을 해하면 군법에 따라 다스린다. 그럼에도 서울방송 '홍길동'은 사람을 마구 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재미를 넣으려 여자를 사이에 끼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가 물건인가? 사이에 재미를 넣어 '사랑놀이'하듯 끼워놓게? 원글 '홍길동'에서는 마지막에 이르려 대마도 정벌하기 앞서 반인반수 무리를 전멸시키며 반인반수 무리가 노예처럼 부려먹고 겁탈하려 마을에서 뺏아온 여인 셋이 나온다. 홍길동은 이들도 반인반수 무리인 줄 알고 죽이려 하다 그네들 하소연을 듣고 사람인 줄 알아 그네들

셋을 아내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원작에 충실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새로 꾸미는 방송물이라면 적어도 사실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곳과 살릴 곳도 있다. 더불어 '패러디'를 하든 다시 꾸미든 무언가 똑부러지게 그려낼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서울방송에서 내보내는 '홍길동'은 '홍길동' 원전에서 말하는 민중성과 혁명, 투쟁성을 모두 누그러뜨리고 원작에도 없는 사실왜곡을 일삼아 '홍길동'이 여자만 밝히는 무뢰한에다 정치가, 기련하고 얫된 모습, 무예와 슬기로 문제를 푸는 길동이가 아닌 말로만 떠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구나 원작에 없는 인물을 잔뜩 집어넣는다면 그네들도 한껏 이야기를 살려야겠으나 원작 '홍길동'을 죽이는 데에만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뭔 '현대판 홍길동'인가?

'홍길동'을 어느 때 다시 그리더라도 지켜야 할 구석이 있다. 길동이는 시대에 따라 어찌할 수 없던 신분차별을 밎고 일어선 이다. 뛰어나고 흘륭한 재주가 있으나 이것이 임금이 아니면 억직으로 물리는 재주가 되고 말아 나라안에서 펼치지 못한다. 이러한 억울함을 안고 민간 사회에서 문제가 된 활빈당에 흘몸으로 들어가 이를 바로 잡는다. 이는 민중살이를 참답게 바로잡은 모습이다. 나아가 사회를 온통 쑥밭으로 만들며 민중 목을 조르던 여압 얼개를 되돌리고 수탈하고 강탈하는 곳곳 관리를 혼내주며·죽이지 않는다·그네가 강탈한 재물과 곡물은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준다. 더불어 종교폐단을 바로잡고자 해인사 비리를 낱낱이 들어내 종교계가 빼돌린 재물도 다시 민중들에게 나눠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임금에게 믿음을 얻어 영의장자리까지 오른다. 하지만 길동은 자신이 벌인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겨가며 한 일이기나 여 나라 영의장은 하지 않고 물건너 나라로 가 새 나라를 세운다. 여기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잘못을 인정한 안타까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구석을 빼고라도 지금 시대에 맞는 홍길동을 그리겠노라면 이같은 사상과 민중성을 조금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서울방송은 무언가?

서울방송은 오로지 '독재하는 지도자' 논리와 '비굴하며 잔뇌 많은 참모' 논리와 '썩은 관리가 되려 멋스럽다'는 되잖은 논리를 세운다. 누구를 생각하는 방송물이며 누가 보라고 그리는 방송물인가? 나오는 이 모습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두루 살펴 옷이며 여러 소품이며 생기지도 않고·일본무사와 같은 옷을 차려입은 활빈당·내용마저도 잔뜩 이지러져 있다.

꼭 이승희 생각이 나도록 한다. 낱말책(사전)을 지으며 일본 낱말책을 베껴다 놓고 일본 물건·이름, 온갖 영어·독어·프랑스어 따위를 우리말 낱말이라며 올려놓고는 우리말 줄이는 거의 하지 않은 '민중 엣센스 사전'. 서울 방송 '홍길동'은 꼭 그 꼴이다. 겉만 반지르르하고 자화자찬을 아무리 한다 해도 속내까지 꾸밀 수는 없다. 역사와 고전을 새로 꾸미거나 녹여내는 일을 함부로 해도 안되며 마구잡이로 해도 안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자 서울방송이 '홍길동'을 거침없이 만들어 내는지도 모르겠다.

최종규
〈서양·네덜란드어 2〉

알림 투고글받습니다

혼자만 감상하기 아까운 외대인의 작품을 찾습니다. 문예작품, 서예, 미술, 만화, 광고등 모든 종류의 작품을 받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학생위주의 편집된 잡지가 아닌 교수,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에 한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모집분야 : 영화평에서 광고까지 모든 문예작품
모집기간 : 매주 금요일
문 의 :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외대학보

사진 수필

집의 반쪽이 없었다.
뒷산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을 쓸어버렸단다.
가진 것 없는 농민의 모든 것을.
그래도 그들은 목숨은 건졌다며 너무나 고마워했다. 개강과 세민전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왕산 친구들은 수해복구활동을 나갔다. 어떻게 오게 됐냐는 질문에 "달연히 와야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 지난 3일(목)~4일(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진행한 용인배움터 수해복구 활동에서

임승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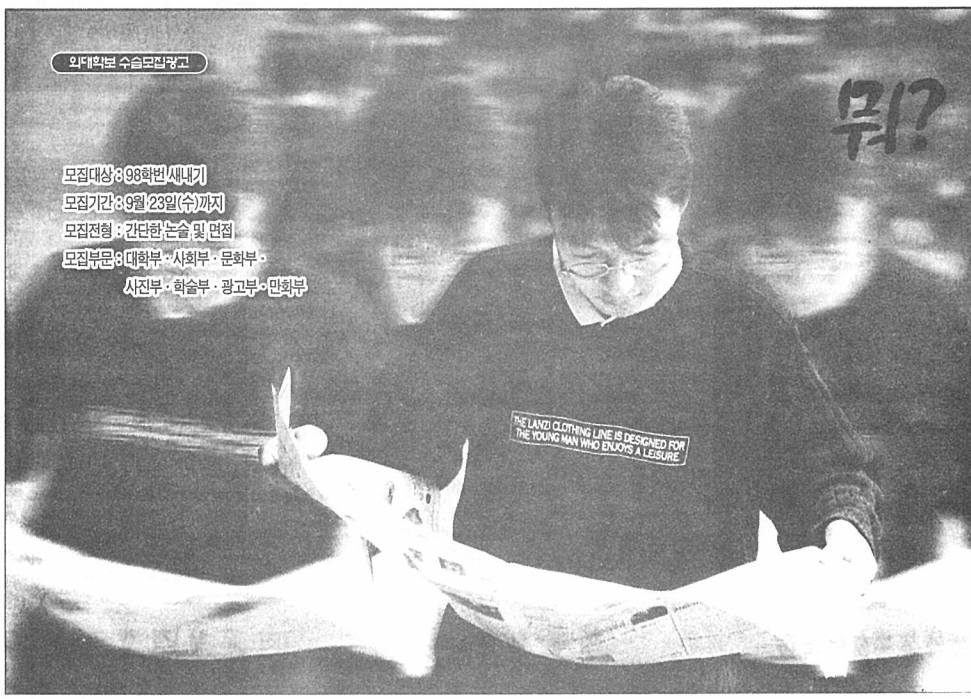
한 사람만을 위한 동화

바닷가, 파도가 일렁이는 모래밭에 조약돌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 조약돌은 못 생겼다며 말도 하지 못하는 바보였습니다
조약돌은 섬을, 바다 멀리있는 섬을 사랑했습니다
그 섬은 너무나 아름다워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섬은 하찮은 조약돌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약돌은 섬에게 고백하기 위해 바다를 헤엄쳐 갔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파도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럴때마다 조약돌의 가슴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마는 행복했습니다
파도가 그리고 바닷물이 섬과 조약돌을 연결시켜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조약돌은 밀물을 그리고 파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이상 멍들 곳이 없게 되자 섬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약돌은 또다시 멍들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섬과 연결시켜주던 밀물이 그리고 파도가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둘변했습니다
거세게 몰아쳤고
미련이라는 거품도 몰고 있습니다
조약돌은 밀물에게서, 파도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조약돌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물이 달아 모래가 되고
모래가 닳아 사라질 때까지
섬을 사랑하는 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오늘도 그 바닷가 조약돌은
꿈을 꿉니다
언젠가 내몸이 닳아 먼지가 되면
바다를 헤엄쳐 건너가
사랑하는 섬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언젠가 벌이 죄다
별똥별이 되어 떨어지는 날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윤여성
〈법·법학 3〉



수습기자?

수습기자가 뭔데?
뭐? 98학번 새내기만 모집?
외대학보라~아아~ 우리학교 신문!
어라 학생기자라.
사실 내꿈이 '기자'잖아.
그럼, 한번 해봐?
안돼, 전공도 챙겨야하고 미팅도 있고…
난 바쁜 몸이라구.
뭐? 기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장학금도 나오고
해외연수도 보내준다고?
에이~ 난 그 정도에 안넘어가지.
뭐? '자유언론, 정론직필'?
그래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언론의 힘.
그래! 나 외대학보 수습기자 할래!!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